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1. 4월

Vol. 14

ISSN 2713-9387

모음

관람 문화의 변화와 전망



— 1971-2021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미국,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UAE
- 14 2. 문화산업 : 벨기에,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카자흐스탄
- 19 3. 체육 :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 22 4. 관광 : 캐나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UAE, 베트남, 카자흐스탄
- 31 5. 문화체육관광통계 : 독일, 벨기에

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35 1. 바이든 정부에서 첫 문화부 장관이 탄생할까?
- 39 2. 포용적 회복 가이드-코로나19의 사회문화적 충격(issue2: 문화 관광)
- 43 3. 예술의 재개장 : 예술단체의 최신 사례와 지침

III 이달의 담론 | 팬데믹 이후 뮤지엄 관람 문화의 변화와 향후 전망

I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미국,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 UAE
2. 문화산업 : 벨기에,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카자흐스탄
3. 체육 :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4. 관광 : 캐나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 UAE, 베트남, 카자흐스탄
5. 문화체육관광통계 : 독일, 벨기에

1. 문화예술

공연예술 재개를 위한 지원과 방침

미국

연방정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문화예술계 지원 포함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연방정부는 문화예술계 지원금을 포함한 총 1조 9천억 달러(약 2,152조 원)의 2021년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지원은 총 4억 7천만 달러(약 5,320억 원)로 국립예술기금(NEA)과 국립인문학기금(NEH)에 각 1억 3,500만 달러(약 1,527억 원),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IMLS)에 2억 달러(약 2,263억 원)를 지원한다. 국립예술기금과 국립인문학기금 예산의 60%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단체를 위해 직접 보조금과 관련 운영비로 제공되고, 나머지 40%는 국가기관과 지역예술단체 등에서 전담해 집행할 예정이다.

(출처 : hyperallergic, 2021.3.9.)

뉴욕주, 경기장·공연장 제한적 입장 허용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주지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실내의 경기장·공연장의 관람객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별 시설은 재개장 관련 계획을 주보건국(DOH)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재개장이 가능하게 됐다. 상세 제한조치로는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시설의 경우 정원의 10% 이내로 인원 제한, 입장객의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제출, 마스크 착용 의무,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좌석 제한 등이 있다.

또한 뉴욕주는 4월 2일부터 콘서트, 연극 등 대면 공연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수용 인원의 33% 범위 내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실내의 경우 100명, 야외는 200명이다. 단 모든 참석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실내 공연은 150명, 야외 공연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예술 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뉴욕주의 결정을 환영했으나, 실내 공연 관객이 정원의 33% 이내로 제한되어 대부분의 상업 공연의 경우 공연재개가 재정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로드웨이 극장들의 이익 단체인 브로드웨이리그 측도 공연 재개 조건에 대해 “그 정도 관객이 입장하는

수준의 공연재개라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무대에 올릴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koreadaily, 2021.2.11. / nytimes, 2021.3.3.)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소장품 판매

뉴욕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판매할 계획이라 밝혔다. 작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직원의 임금 지불과 잔여 소장품 관리를 위한 유지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비평가들은 미술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작품 판매가 위험한 선택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뉴욕 휘트니 뮤지엄(Whitney Museum)의 아담 웨인버그(Adam Weinberg) 관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인한 재정난으로 11개 부서에서 총 15명의 직원을 추가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휘트니 뮤지엄은 지난해 관람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76명을 1차로 해고한 바 있다. 웨인버그 관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휴관하고 8월에 재개관했던 휘트니 뮤지엄은 전년 대비 관람객이 약 80% 감소했고 수입도 전년의 1,350만 달러(약 153억 원)에서 580만 달러(약 66억 원)로 대폭 감소했다. 웨인버그 관장은 뉴욕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며 관람객 수입 저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휘트니 뮤지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300만 달러(약 260억 원)의 적자에 직면했고, 코로나19 부양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으로 1,000만 달러(약 113억 원)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washingtonpost, 2021.3.8.)

독일

단기계약 공연예술인 대상 재난극복 지원 프로그램 실시

연방경제부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과 재무부 올라프 쉘츠(Olaf Scholz) 장관은 문화미디어부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장관과 함께 문화 분야에 대한 재난극복 지원 프로그램(Bridging aid III)에 단기계약 공연예술인 지원 조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단기 근로자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7,500유로(약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본 조치를 통해 프리랜서와 같이 문화예술단체에 고정적으로 소속되지 않은 공연예술인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프리랜서 예술가는 초청공연이나 영화 등 단기 계약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단기 근로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2020년 3월 이후 무대공연이 중단되어 1년여간 고용 기회가 전무했으며

영화제작 참여도 현저히 감소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문화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고 올라프 솔츠 장관도 이번 조치로 단기계약 공연예술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출처 : 독일 연방공보처 보도자료38, 2021.2.5.)

독일 민주주의 역사 유적지를 위한 재단 설립

독일 연방정부는 문화미디어부 모니카 그뤼터스(Monika Grütters) 장관이 제안한 독일 민주주의 역사 유적지를 위한 재단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 재단은 관련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과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가치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뤼터스 장관은 독일이 역사 연구를 깊이 있게 지속해 온만큼 독일 역사의 긍정적 측면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이 숨쉬고 있는 상징적 장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단 설립을 통해 바이마르 헌법부터 연방공화국, 동독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독일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장소를 보존하고, 이를 통해 독일이 무엇을 수호해야 하고 민주주의 역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릴 예정이다.

(출처 : 독일 연방공보처 보도자료33, 2021.3.10.)

중국

홍콩 정부, 2021-2022 문화예술분야 예산안 발표

홍콩 정부가 발표한 2021-2022 문화예술분야 예산안은 관광활성화(Support Tourism)와 문화창의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홍콩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26억 홍콩달러(약 3,800억 원)에 더해 9억 3,400만 홍콩달러(약 1,3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홍콩관광청(HKTB)을 통해 7억 6,500만 홍콩달러(약 1,100억 원) 규모의 'Holiday at Home'¹, '360 Hong Kong Moments'²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출입국 개방에 대비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보건을 고려하는 수준 내에서 국내관광 규제완화, 그리고 홍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창의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운영한 크리에이트스마트 이니셔티브(CreateSmart Initiative, CSI)³에 10억 홍콩달러(약 1,450억 원)를 투입해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2021-2022년에는 57억 홍콩달러(약 8,250억 원)를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홍콩 내 공공 여가시설인 천완 공립도서관(Tsuen Wan

1. Holiday at Home:
홍콩 관광청 주관으로 홍콩 내의 10,000여개 관광자원(쇼핑, 호텔,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경내(境內)관광 활성화 사업

2. 360 Hong Kong Moments: 코로나19 상황 완화를 대비해 홍콩관광 인지도를 유지하기 위한 360도 VR 관광영상 프로그램

3. CreateSmart Initiative(CSI):
홍콩 정부가 창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2009년에 신설한 계획으로 인재양성, 신규 회사 설립 등에 자금 지원

Public Library), 타이포 시민회관(Tai Po Civic Centre), 사이완호 시민회관(Sai Wan Ho Civic Centre) 개축 공사에 약 9억 홍콩달러(약 1,300억 원)를 지원해, 21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민정사무국(Home Affairs Bureau)은 정책국 전담팀을 구성해 예술과 과학기술의 상호 융합을 추진하고 예술분야, 과학기술업체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억 홍콩달러(약 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출처 : 홍콩 정부 재무부, 2021.2.24.)

리커창 총리, 2021년 문화산업 발전방향 제시

리커창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2021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0년 실적,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 2021년 주요 목표와 중점 사업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는 문화부문 발전방향을 5가지로 제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률행정 강화와 사회건설·사회통합에서 공공문화 서비스 강화
- 의료 위생 사업의 발전 가속화와 문화산업의 번영과 발전
-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사회문명 수준 향상, 공공문화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해 현대 문화산업 체계 완성
- 내수 확대 추진으로 국내시장 잠재력 중점 발굴, 건강·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서비스 소비 촉진과 온라인 융합 모델 발전
- 신문출판·방송영상·문화예술·철학사회과학·도서 등의 사업 진흥 : 인터넷 콘텐츠 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 문화재 보존과 무형 문화재 전승 강화, 도농 간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해민사업으로 전 국민 독서 향상, 국가 간 인문교류, 베이징올림픽과 패럴림픽 계획 상세화 등

(출처 : 文化产业新视界, 2021.3.5.)

2021년 전국영화공작회의 개최

지난 3월 2일, 2021년도 전국영화공작회의(全国电影工作会议)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본 회의에는 국가영화국 왕샤오후이(王晓晖) 국장, 성·시급 중앙선전부 영화부문 대표, 주요 영화사 대표, 영화협회·학회, 중앙매체 기자 그리고 영화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했다. 회의는 2020년 영화산업의 검토와 현황 분석 그리고 2021년 주요 과제를 다루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영화계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 영화산업 흥행수입 총액은 204억 1,700만 위안(약 3조 5,600억 원)을 기록했고 중국 자국영화 흥행수입은 170억 9,300만 위안(약 3조 원)으로 전체 흥행수입의 83.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2021년 중국 영화산업의 주요 과제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관련 영화 소재 발굴, 국유 영화기업의 개혁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업계 영향력 강화, 영화분야 시스템 개선, 스튜디오 건설 수준 향상, 영화 인재 양성 등이 제시됐다.

(출처 : 1905 Film Network, 2021.3.2.)

영국

예술분야 재개장을 위해 3억 9,000만 파운드 추가 지원

영국 정부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예술분야의 재개장을 위해 3억 9천만 파운드(약 6,1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중 3억 파운드(약 4,700억 원)는 문화회생기금(Culture Recovery Fund)에 할당되고, 9,000만 파운드(약 1,400억 원)는 국립박물관과 문화기관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문화예술분야 지원 정책의 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영화 및 TV 제작 재개 제도(Film and TV Production Restart Scheme)'는 6개월 연장되어 연말까지 진행되고, 임시 휴가(furlough) 중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 유지 계획(Job Retention Scheme)과 관광·서비스업의 부가가치세를 5%로 감면한 정책도 9월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한편,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위원회(DCMS Committee)의 줄리안 나이트(Julian Knight) 의장은 취소된 축제에 대한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런던극장협회장인 줄리안 버드(Julian Bird)도 극장 재개를 위한 보험제도의 시행을 촉구했다.

(출처 : BBC, 2021.3.3 / 가디언, 2021.3.3)

프랑스

문화부, 코로나19 테스트 콘서트 시행 발표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행사와 시설의 재개장을 위해 파리과 마르세이유 등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콘서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테스트 콘서트는 파리 생루이 병원과 협력해 4월 내 파리 아코르호텔 아레나(Accor Hotel Arena) 공연장에서 5,000명의 관중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중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물리적 거리두기 없이 서서 록밴드 인도차이나(Indochine)의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참가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총 7,500명의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이들은 공연 72시간 전에 PCR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 전원은 콘서트 당일엔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고, 7일 후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 12월 1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행된 테스트 콘서트의 절차와 동일하다. 463명의 관중이 마스크 착용 후 물리적 거리두기 없이 참석했고 콘서트 개최 8일 후 관람자 전원 재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선례가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본 테스트 콘서트를 통해 공연장 등 문화시설 개방 여부와 방역 정책을 수립할 목적이다.

(출처 : franceinter, 2021.3.2.)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개방 조치

지난 2월 17일 문화부 아만다 린드(Amanda Lind) 장관이 전국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 문화시설의 개방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공공 문화시설은 10㎡당 1명의 방문객 혹은 최대 500명의 방문객이 허용됐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8명으로 제한된 공공시설 모임 규제를 완화하고, 감염 위험 정도와 이벤트 범주에 따라 제한 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쿨투르뉘헤테르나(Kulturnyheterna)의 조사에 따르면 22개의 박물관 중 17개 기관은 여전히 폐관 중이며 온라인 활동만 제공하고 있다.

(출처 : SVT, 2021.2.17., 2021.3.12.)

예술위원회, 예술위기지원금 신청 문의 폭주

스웨덴 예술위원회의 예술위기지원금 책임자인 에리카 몬손(Erica Månsson)은 2021년 예술위기지원금 첫 신청기간 동안 약 1,700건의 문의와 16억 크로나(약 2,124억 원) 상당의 지원금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문화행사 주최자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예술위기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한편, 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지원금은 현재까지 전국 21개 지역에 총 12억 크로나(약 1,593억 원)가 지급됐고 3,000개 이상의 문화단체가 위기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수도 스톡홀름이다.

(출처 : Sveriges Radio, 2021.3.3.)

대형 민간 은행의 국립박물관 후원

스웨덴 국립역사박물관 중 하나인 경제박물관(Ekonomiska Museet-Royal Coin Cabinet)은 올 가을에 대형 민간 은행인 스웨드뱅크(Swedbank)와 후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스웨드뱅크는 경제박물관에 6년 반 동안 1,500만 크로나(약 20억 원)를 기부하는 대신, 박물관의 주제와 연사에 개입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와 고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립 박물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실리아 폰 하이네(Cecilia von Heijne) 관장은 모든 사안의 최종 결정은 박물관 측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웨덴 국공립 박물관은 은행, 제약 회사, 와인 회사, 무기 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 스웨덴 자연사 박물관은 카지노의 후원을, 국립 현대미술관은 담배 회사와의 협력을 거절한 전례가 있다.

(출처 : SVT, 2021.3.11.)

오스트리아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3,000만 유로 추가 지원

지난 2월 24일 오스트리아 연방의회는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피해구제 기금에 3,000만 유로(약 40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은 자영업자로 등록된 문화예술인을 위한 '임시지원기금(Überbrückungsfonds)'과 이 임시지원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기금(Künstler-Sozialversicherungsfonds) 내 '코로나19 기금(Covid-19 Fonds)'으로 구분된다.

'임시지원기금'은 이번 추가 지원에서 1,000만 유로(약 135억 원)를 증액해 총 1억 2,000만 유로(약 1,613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임시지원기금'은 이미 지난해에 초기 기금(9,000만 유로, 약 1,200억 원)의 75%를 소진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에 기금 규모를 1억 1,000만 유로(약 1,480억 원)로 확대한 바 있다. 기금 설립 초기에는 지원금이 1인당 최대 6,000 유로(약 800만 원)였으나, 지난 10월에 10,000 유로(약 1,350만 원)로 상향했다. 정부는 2020년 총 22,779건의 신청건 중 약 92%인 20,958건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11월 중순엔 봉쇄령에 따른 추가지원금 1,300유로(약 175만 원)를 지원했다. 이로써 총 5,836명의 문화예술인들이 1인당 평균 8,600유로(약 1,168만원)를 수령했다.

사회보험기금 내 '코로나19 기금'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2,000만 유로(약 270억 유로)로 확대된다. 지난해 '코로나19 기금'은 2단계로 진행됐는데 1단계는 3월부터 7월 2일까지 1인당 1,000 유로(약 135만 원), 2단계는 7월 10일부터 12월까지 '봉쇄령 보상금'을 더해 1인당 최대 3,500 유로(약 470만원)까지 지원됐다. 2021년도 지원은 1월 15일부터 시작됐고 1인당 최대 3,000 유로(약 4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문화예술공공서비스부 안드레아 마이어(Andrea Mayer) 차관은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는 신호이며,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은 문화예술인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차관은 문화예술인들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수월하게 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Wiener Zeitung, 2021.2.24.)

폴란드

창작자·예술인 사회지원금 제도, 문화유산부에서 국립문화센터로 이전

폴란드 문화유산부에서 담당하던 창작자와 예술인을 위한 사회지원금 제도가 3월 1일부터 국립문화센터(Narodowe Centrum Kultury)로 이전됐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과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유산부에서 시행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4,000여명의 창작자와 예술인을 지원했고 총 지원금은 약 2,500만 즈위티(약 73억 원)에 달한다. 2월 28일까지 접수된 사회지원금 신청서는 기존 절차에 따라 문화유산부에서 검토하고, 3월 1일부터는 국립문화센터에서 신청서 접수와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출처 : 폴란드 국립문화센터, 2021.3.1. / 폴란드 문화유산부, 2021.3.2.)

캐나다

예술·공연 분야 특별 보조금 지원

캐나다 문화유산부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장관은 캐나다 예술위원회 사이먼 브라우(Simon Brault) 대표와 함께 2021-2022년도 예술·공연 분야 지원으로 1억 8,150만 캐나다 달러(약 1,650억 원)의 기금을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술·공연 분야가 안전하게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예술가 그룹, 단체, 기관의 온라인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Digital Now)에 5,050만 달러(약 457억 원), '탐구와 창작 프로그램(Explore and Create program)'에 6,6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지원해 연구·창작·작업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라이브 공연 부분의 단기 근로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4,000만 달러(약 360억 원)의 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본 기금으로 2019년에 예술과 음악부문 안정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들에 2,500만 캐나다 달러(약 227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 구축(Building Communities through Arts and Heritage program)'에 700만 캐나다 달러(약 63억 원), '캐나다예술발표기금(Canada Arts Presentation Fund)'에 800만 캐나다 달러(약 74억 원), '캐나다음악기금(Canada Music Fun)'에 1,000만 캐나다 달러(약 90억 원)를 지원한다.

(출처 : 캐나다 문화유산부, 2021.3.12.)

퀘벡주, 제22회 몬트리올 빛의 축제 개최

제22회 몬트리올 빛의 축제(MONTRÉAL EN LUMIÈRE)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월 4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퀘벡주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디지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지역 예술가를 소개할 것이라 설명했다. 문화유산부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장관은

캐나다예술발표기금(Canada Arts Presentation Fund)을 통해 축제 내 프로그램에 68,750 캐나다 달러(약 6,200만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경제개발·공식언어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Official Language) 멜라니 줄리(Mélanie Joly) 장관도 제22회 축제를 위해 '퀘벡 지역을 위한 캐나다 경제개발(Canada Economic Development for Quebec Regions, 이하 CED)'의 지원을 재확인했다. CED는 2019년과 2020년에 축제의 국제 마케팅 지원으로 112만 5,000 캐나다 달러(약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미식을 주제로 한 신제품 개발과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캐나다 문화유산부, 2021.3.4)

호주

NSW주정부, 라이브 공연을 위해 100만 호주 달러 지원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이하 NSW) 주정부는 시드니 라이브 공연 행사 지원 기금(Play the City)에 100만 호주 달러(약 9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지난 1차 신청에서 총 50만 호주 달러(약 4억 5,000만 원)의 지원금으로 53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이번 추가지원으로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NSW 주정부는 본 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 중인 사업체를 간접 지원하고 공연, 행사 등으로 시드니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Create NSW, 2021.2.18)

퀸즐랜드 주정부, 예술 기금으로 80만 호주 달러 지원

퀸즐랜드 주정부는 퀸즐랜드 예술 쇼케이스 프로그램(Queensland Arts Showcase Program)을 통해 21개의 프로젝트에 약 80만 호주 달러(약 7억 원)를 지원, 주 전역에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술부 리안 에녹(Leeanne Enoch) 장관은 이번 기금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주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작품과 예술 경험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퀸즐랜드 예술 쇼케이스 프로그램은 2015년 9월에 시작한 이후 506명에게 1,800만 호주 달러(약 158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출처 : 퀸즐랜드 주정부, 2021.2.26)

이탈리아

문화부와 관광부의 분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신임 총리는 2월 26일자로 문화관광부(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e per il turismo, MiBACT)의 명칭을 문화부(Ministero della cultura, MiC)로 변경하고, 문화부와 분리되어 관광에 전념하는 부서로서 관광부(Ministero del Turismo)를 신설했다. 문화부 장관은 다리오 프란체스키니(Dario Franceschini)가 유임하고 관광부의 신임 장관은 전 경제부 장관이었던 마씨모 가라발리아(Massimo Garavaglia)가 임명됐다.

일본

문화청 주최, 전국 7개 공항에서 미디어예술 작품 전시

문화청은 해외 관광객에게 일본 문화의 매력을 전달하고자, 일본 전국 7개 공항에서 미디어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제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CULTURE GATE to JAPAN' 프로젝트를 주최했다. 문화청은 비록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교류가 제한됐지만, 향후 해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 전시된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일본 문화를 선체험할 수 있도록 본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 장소는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중부 국제공항(나고야), 칸사이 국제공항(오사카), 후쿠오카 공항, 나하 공항(오키나와),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이고, 공식 누리집(<https://culture-gate.jp/ja>)에서 온라인 작품 전시와 작품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CULTURE GATE to JAPAN 공식 누리집)

UAE

문화관광부, 유네스코와 코로나19의 문화경제 영향 연구 협력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이(Audrey Azoulay)는 아부다비 문화 정상회의(Cultural Summit Abu Dhabi)에서 코로나19가 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회복 조치를 연구하기 위해 아부다비 문화관광부(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 Abu Dhabi, 이하 DCT-아부다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줄레이 사무총장은 문화분야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그 피해와 회복을 경제적 관점 이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상회의에서 DCT-아부다비 모하메드 칼리파 알 무바라크(Mohamed Khalifa Al Mubarak) 의장은 예술과 문화 경험의 부족은 정신 건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thenationalnews, 2021.3.8.)

2. 문화산업

코로나19 위기 속 문화소비의 가치 변화

벨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출판 시장의 변화 - 만화도서와 전자책 소비의 증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들이 폐쇄되면서 전반적인 도서 매출은 크게 감소했으나, 오히려 만화도서는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해 벨기에에 프랑스어권의 만화도서 판매부수는 전년대비 6% 증가했고,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9%, 18% 증가해 만화도서의 판매 증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만화도서의 판매 증가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 째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연극, 여행 등 거의 모든 문화 소비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만화나 스트레스 해소 역할을 하며 다른 문화생활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블과 DC코믹스 등 만화원작 할리우드 영화의 개봉 연기도 만화도서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소비의 초점이 변화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일부 소비시장에서는 소비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년대비 2020년에 출판된 만화도서 부수는 적었지만, 만화도서 전체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만화도서도 수집품의 일종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이라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도서 장르의 변화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점과 도서관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도서 장르의 선호가 달라졌다. 학술서적 등의 전문 서적, 논픽션, 에세이, 아동 도서의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소설과 만화도서의 판매량은 증가했다.

또한 오프라인 도서 시장의 폐쇄로 소비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 이동했다. 벨기에 프랑스어권에서는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전자책 매출이 전년대비 80% 증가했고, 주문량과 판매량은 약 700% 상향, 전자책 단말기의 사용자 수도 7배 많아졌다.

(출처 : ActuaBD, 2021.1.28./ lettresnumeriques, 2020.11.20.)

스웨덴

2020년 문화부문 130억 크로나 손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스웨덴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년 대비 매출이 약 17% 감소해 130억 크로나(약 1조 7,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취업자는 전년도 57,400명에서 51,500명으로 약 10% 감소했고, 콘서트홀과 극장은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며 매출의 57%가 하락했다. 또한 음악축제 등을 포함하는 문화활동 산업의 전체 매출은 62억 크로나(약 8,200억 원) 감소했고, 특히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의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 통계청의 통계학자 다니엘 레날트손(Daniel Lennartsson)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Dagens Nyheter, 2021.2.25.)

영화관 재개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

지난 2월말 스웨덴 공중보건당국은 4월 11일부터 50명 관객 제한의 영화관 재개를 포함해 감염 현황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 영화관 대표들은 4월 중으로 폐쇄된 영화관의 재개관을 희망하고 있지만, 문화부 이만드 린드 장관은 이에 대해 확실한 일정은 발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스벤스카 비오(Svenska Bio) 영화관의 페테르 포르스타름(Peter Fornstam) 대표는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스웨덴 영화관이 부활절 전에 개관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의 대다수 영화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년동안 폐쇄되었고 수십억 크로나의 손실을 입었다. 스웨덴 대표 영화관인 필름스타덴(Filmstaden)은 3월에 폐관해 6월 말에 재개관했으나 11월 말에 다시 문을 닫았다. 영화관의 연평균 방문자 수는 약 1,100만 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330만 명이 방문했고, 이 중 200만 명은 3월 이전에 방문한 관객이다. 37개의 영화관을 보유한 스벤스카 비오(Svenska Bio)는 현재 개관 중이나 지난 12개월 동안 약 4억 크로나(약 526억 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200개 소규모 지역 영화관과 협력해 라이브 콘서트, 공연 예술,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는 폴켓츠 후스 오 파르케르(Fokets hus och parker)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6천만 크로나(약 7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출처 : SVT, 2021.3.12.)

영국

영국 아카데미상, 여성감독 후보와 소수인종 출신 배우로 다양성 확보

지난해 연기상과 감독상이 백인 혹은 남성 후보로만 구성되어 비난받았던 영국 아카데미상(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 BAFTA)이 올해는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년도 영국

아카데미상은 감독상 후보로 4명의 여성 감독이,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3명의 여성 감독이 선정됐고, 지난해 유색인종 배우가 전무했던 연기상 후보에는 총 24명의 후보 중 소수인종 출신 배우가 16명 포함됐다. 협회는 지난 시상식 이후 7개월 동안 협회 지침 내 다양성 부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했고 투표, 회원정책, 캠페인 과정 등에 120가지 이상의 사안을 변경했다. 한편 올해 시상식은 4월 11일에 무관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BBC, 2021.3.9)

캐나다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약속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는 성평등 실천 기관에 수여하는 플래티넘 패리티(Platinum Parity Certification)를 2년 연속 수상하며 앞으로도 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창작된 작품수와 예산 배분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공공 제작사와 배급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2019년~2020년 269개에서 2020년~2021년 298개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가 수월해 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원회는 영화 촬영분야와 음악 작곡분야에서도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캐나다국립영화위원회, 2021.3.5.)

호주

영화 로케이션 유치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줄리아 로버츠(Julia Roberts)와 조지 클루니(George Clooney) 주연의 영화 <티켓 투 파라다이스(Ticket to Paradise)>가 호주 연방정부의 영화 로케이션 유치 지원사업(Location Incentive Program)으로부터 640만 호주 달러(약 56억 원)를 지원받아 퀸즐랜드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영화제작으로 호주 경제에 4,700만 호주 달러(약 410억 원)가 투자되고 270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신·인프라·도시·예술부(Minister for Communications, Urban Infrastructure, Cities and the Arts) 폴 플레처(Paul Fletcher) 장관은 영화 로케이션 유치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2개 영화제작을 유치해 약 2억 1,600만 호주 달러(약 1,900억 원)를 지원했고, 호주 현지에 12,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출처 : 호주 통신예술부, 2021.3.8.)

인터넷 생방송 관리 강화

지난 2월 9일, 국가 인터넷정보관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건전하고 질서있는 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생방송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업과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公安부(公安部) 등 6개 부문과 공동으로 <인터넷 생방송 관리강화 관련 지도 의견(关于加强网络直播规范管理工作指导意见)>을 발표했다. ‘의견’은 생방송 플랫폼과 BJ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용을 위한 콘텐츠의 내실과 보안 강화, 시스템 표준 수립과 개선 등 5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의견’에는 BJ 후원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BJ 계정의 등급별 분류, 후원금 서비스와 유료광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계정 등급별·방송 회차별 후원금 상한액과 방송시간, 방송횟수 등의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중국인터넷정보관공실, 2021.2.9.)

형법 개정안의 지식재산권 보호·처벌 규정 강화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十一)이 통과되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서 특히 형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범죄 최고형 10년’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외 저작권 관련 개정은 아래와 같다.

• **형법 제217조:**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서, 불법 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그 밖의 침해 정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 소득의 액수가 매우 크거나 그 밖의 침해 정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에 처한다

-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문자 작품, 음악, 미술,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유포하는 경우
- (2)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가진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 (3) 녹음·녹화 제작자의 허가 없이 복제해 배포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중에게 제작된 녹음·녹음물을 유포하는 경우
- (4) 공연자의 허가 없이 공연을 녹음·녹화해 복제 배포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그 공연을 유포한 경우
- (5)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미술작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자가 그 작품이나 녹음·녹음물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형법 제218조:**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 제217조에 규정된 침해 복제품임을 알고도 판매한 경우, 부당이득 금액이 크거나, 침해 정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출처 : IPRdaily, 2021.3.1. / 상해지식재산권국, 2021.1.4.)

역사 장르에 영화산업 예산의 70% 편성

문화체육부 악토티 라임쿨로바(Aktoty Raimkulova) 장관은 2021년 문화진흥지원금 중 영화산업부문 예산의 70%를 역사·애국 콘텐츠 영화에 책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의 30%는 민간 영화제작사와 신인제작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장관은 현재 넷플릭스, HBO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들이 아시아 콘텐츠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역사는 대형 상업영화의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관은 공공 영화제작기업인 '카작필름'의 예산을 대폭 증가해, 카자흐스탄 내 영화제작 인프라 발전에 집중할 것을 언급했다.

(출처 : Kazakhstanskaya Pravda, 2021.2.18.)

3. 체육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해외 관중 수용여부와 관객 상한인원 논의

지난 3월 3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5자회담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회담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회장,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 대회조직위원회 하시모토 세이코 회장, 일본정부 마루카와 타마요 올림픽담당대신, 도쿄도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참가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회장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이며, 각국 올림픽위원회(NOC)는 모든 참가자에게 백신접종을 마치고 도쿄에 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어 진척상황이 좋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0일에 개최된 온라인 5자회담에서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공식 결정됐다. 일본 정부와 조직위는 원칙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자원 봉사단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각 경기장의 관객 상한인원은 4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이사직의 상한 인원을 증원하고 동시에 12명의 여성 이사를 새로이 선임했다.

영국

DCMS, 여성 스포츠와 럭비리그 지원 계획 발표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스포츠 분야를 위해 여성 스포츠와 럭비리그 지원을 포함하는 3억 파운드(약 4,700억 원) 규모의 ‘겨울철 스포츠 서바이벌 패키지(Sports Winter Survival Package)’를 발표했다. 본 기금은 각 조직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omen’s Super League)와 FA 여자 챔피언십에 225만 파운드(약 3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검사키트 25만 개의 우선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잉글랜드 네트볼과 바이탈리티 네트볼 슈퍼리그(Vitality Netball Superleague)는 420만 파운드(약 65억 원)를 지원받고, 영국 농구리그는 250만 파운드(약 39억 원) 규모의 지원금과 융자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바스켓볼 잉글랜드(Basketball England)는 20만 파운드(약 3억 원)의 지원금을, 배드민턴 잉글랜드(Badminton England)는 130만 파운드(약 2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또한 정부는 럭비리그 지원으로 럭비 유니온 클럽에 4,000만 파운드(약 625억 원), 챔피언십 대회 출범에 550만 파운드(약 82억 5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영국 럭비 유니온(Rugby Football Union)에서 보조금과 융자 형태로 남자·여자·유소년부 등 각각의 럭비 클럽에 배분할 예정이다.

(출처 : DCMS, 2021.2.19./2021.3.5.)

미국

뉴욕주, 스포츠경기 입장시 전자백신여권 시범도입

뉴욕주는 스포츠 경기장 입장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백신여권(Excelsior Pass Wallet App)을 시범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음성 테스트 결과를 입증하는 디지털 여권으로, 모바일 항공 탑승권처럼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두었다가 경기장이나 공연장 입장 시 QR코드 스캔으로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디지털 백신여권이 매디슨스퀘어가든(Madison Square Garden)과 바클레이즈센터(Barclays Center)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 입장 시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음성테스트 결과 제출, 정원의 최대 10% 이하 수용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인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

코로나19로 취소된 문화·스포츠 행사 비용 지원

스웨덴 정부는 보수 정당인 온건당(Moderaterna)의 발의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문화·스포츠 행사 비용 지원에 35억 크로나(약 4,625억 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단, 2019년에 동일한 행사를 개최했거나 유사한 행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 단체만 지원이 가능하고, 정부는 취소된 행사 비용의 70%를 보상할 계획이다. 본 지원으로 고티아컵(Gothia Cup), 베텔룬단(Vätternrundan), 웨이 아웃 웨스트(Way Out West) 축제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엘리자베스 스반테손(Elisabeth Svantesson) 경제정책 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면, 올 가을까지는 주요 축제와 경기가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출처 : Dagens Nyheter, 2021.2.23.)

대학 내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소수인종 대표선수 협회 설립

지난해 캐나다 국영방송사인 CBC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56개 대학의 400여 개 스포츠부문 주요 직책(감독, 국장)에서 소수인종은 약 10%에 불과하고, 심지어 단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국장(Director)이 모두 백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캐나다 대학교 내 스포츠에 참여하는 소수인종 학생수 대비 소수인종 학생대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BIPOC(흑인, 원주민, 유색인종)학생 협회는 대학 스포츠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인종 학생들의 불평등과 불안함을 잠재우고 대학 내 인종차별을 금지하고자, 학교 체육부처와 주요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주도할 '소수인종 대표선수 협회(BIPOC Varsity Association, 이하 BVA)'를 설립했다. BVA는 토론토대학교 스포츠의학 체육교육대(Faculty of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와 연계해 학교 대표선수들 내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 주요 계획은 아래와 같다.

- 1) 학생 협회 지원을 위한 지정 스태프 파견
- 2) 격주 단위로 BVA 임원과 학교 체육부처 간의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 파악
- 3) BIPOC 팀 리더·주장 확대 추진
- 4) 소수인종 감독 채용 확대
- 5) BIPOC 학생 선수들과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배정
- 6) 흑인과 원주민 학생 선수 커뮤니티 지원
- 7) 소수인종 학생 선수 재정지원 확대
- 8) BIPOC 내 5개의 유급 보직을 확대해 BVA 지원
- 9) 모든 운동 시설에서 영구적인 자율 출입 인정

이외에도 BVA는 온타리오주 대학교 선수협회(Ontario University Athletics)에서 추진 중인 인종차별 반대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SIRC, 2021.2.23.)

4. 관광

코로나19 이후 1년, 관광산업의 손실과 전망 연구

캐나다

코로나19 대유행 1년, 캐나다 관광 경제에 대한 연구 발표

캐나다 조사연구업체 데스티네이션 캐나다(Destination Canada)는 코로나19 대유행 1년을 맞아, 코로나19가 관광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캐나다의 관광경제는 2020년에 전례 없는 손실을 보았고 서비스의 특성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캐나다 경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캐나다 일자리 10개 중 1개는 관광분야와 직결되어 있고, 현재 관광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전체 고용시장에 파급효과를 일으켜 모든 캐나다인의 삶의 질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 이민자, 청년들은 관광 관련 기업의 운영 감소, 폐업, 일자리 감소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데스티네이션 캐나다는 캐나다의 관광업 회복에는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관광 지출이 관광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기업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캐나다인들은 안전이 보장되는 한 올해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계획한 해외여행 지출의 약 60%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면 현재 캐나다 관광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190억 캐나다 달러(약 17조 원)의 적자가 최소화되고, 15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며 회복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Destination Canada, 2021.3.8.)

캐나다 입국자, 정부 지정 호텔에서 의무적인 자가 격리 시행

정부는 캐나다에서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입국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2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은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3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이에 발생하는 최고 2,000 캐나다 달러(약 180만 원)의 경비는 자가 부담이다.

(출처 : 캐나다 정부 누리집, 2021.2.22.)

관객 제한 후 1년, 이벤트 산업 피해 분석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이벤트 관객을 제한시키면서 수천 건의 행사가 취소되고 경제적 손실과 함께 대규모 인력 감축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11일에 스웨덴 정부가 “500명 이상의 이벤트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약 2,000개의 이벤트가 취소됐고, 3월 29일에는 최대 50명이라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어 이벤트 업체는 대규모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은 스웨덴에서 공동 제작하는 약 2,000개의 이벤트가 취소됨에 따라, 매출의 83% 이상 손실을 입었으며 직원의 상당수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크랄 엔터테인먼트(Krall Entertainment)도 2020년 3월 이후 약 300개의 이벤트가 취소돼 연 매출의 90%인 1억 7,000만~1억 8,000만 크로나(약 225억~237억 원)를 손해입고, 상근 직원의 30%를 삭감했다. 블리스텐&코(Blisten&Co)는 약 1,000개 이벤트의 취소, 매출의 약 95% 감소, 직원 20% 해고라는 손실을 기록했다. 투엔터테인먼트(2Entertain)은 14개의 무대 제작과 약 400개 공연이 취소되며, 6,000만 크로나(약 80억 원)의 매출 손실로 프로젝트 직원 전원을 해고하고 상근직도 40%나 줄였다.

이벤트 회사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문화와 미디어분야에 총 43억 크로나(약 5,7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이는 손실의 15~20%만을 보상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SVT, 2021.3.9.)

스톡홀름, 관광 수익은 전년대비 절반 수준

스웨덴 환대산업과 고용주 조직인 비스타(Vista)에 따르면, 스톡홀름의 관광 수익은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전년 대비 410억 크로나(약 5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투숙객 수는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 이는 스웨덴 전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은 약 80%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220억 크로나(약 3조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항공 승객수는 75%, 스웨덴 내 명소 방문은 82%, 페리·크루즈·박물관 방문은 67% 감소했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호텔 한손(Hansson)과 호텔 프란츠(Frantz)는 작년 가을 이후 10% 대의 저조한 투숙률을 보이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손실을 보충하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출처 : Dagens Nyheter, 2021.2.25.)

영국

교육·출장 제외한 해외여행 제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정책에 따라 필수 여행을 제외한 해외여행은 5월 17일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여행자가 교육이나 출장 등 여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행신고서(Declaration to Travel)'를 작성해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항공사는 탑승 전에 해당 양식이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가 허가되지 않은 해외여행을 시도할 경우 경찰이 귀가 조치시킬 수 있으며, 200파운드(약 31만 원)에서 최고 6,400파운드(약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영국 정부, 2021.3.5/BBC, 2021.3.5.)

프랑스

주말 봉쇄령과 입국제한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남부 휴양도시를 포함하는 알프마리팀주, 북서부 항구도시 덩케르크 및 북부지역 등 약 20개 지역에 최소 2주 이상의 주말 봉쇄령을 내렸다. 또한 프랑스 전역의 스키장은 무기한 폐쇄하고, 기존 스키 휴양지들은 대체 스포츠로 인기있는 스노슈잉(snowshoeing)¹을 비롯한 이색 겨울체험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편 비유럽연합 국경의 잠정적인 폐쇄로 인해, 프랑스로의 입국은 직업 혹은 건강상의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입국자는 입국목적 확인서,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결과확인서,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와 7일 경과 후 PCR재검사 실시 동의 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1. 우리나라 전통 덧신인 설피와 비슷한 스노슈즈(Snow shoes)를 착용한 채 설산에서 하는 도보 운동

독일

2021년 해외여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독일관광공사(DZT)는 코로나19와 국제관광에 대한 국제관광 마케팅(IPK International)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2021년 해외여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해외여행 의향이 2020년 5월 50%에서 2021년 1월 62%로 증가했으며, 유럽이 72%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53%, 아시아가 41%로 나타났다. 또한 밀레니엄 세대, X세대, 고소득·고학력층이 베이비붐 세대인 55세 이상보다 높은 여행 의도를 드러냈다.

여행 선호 국가는 스페인이 1위이고 독일이 2위, 그 뒤로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이 차지했다. 2021년 독일 내 선호하는 여행은 도시 여행이 50%로 선두였고, 자연환경 중심의 시골지역과 등산 등 휴가 여행이 41%를 차지했으며, 조사대상자의 34%는 독일의 해양지역 여행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여행을 위한 교통수단별 선호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조사

대상자는 항공편을 선호했고(79%), 그 외 자동차(38%), 기차(12%), 버스(7%)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2021년 국제관광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했으며, 조사 대상자들이 해외 여행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80% 이상이 5월과 10월에 여행을 계획한다고 응답해, 해외여행은 5월과 10월 성수기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독일관광청 페트라 헤도르퍼(Petra Hedorfer) 청장은 독일은 유럽국가에서 가장 선호되는 여행지라고 언급하며 도시·문화·자연 환경 등 우수한 관광요소를 보유하고 있기에 독일 관광산업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독일관광청 보도자료, 2021.3.8.)

중국

2021년 문화·관광 부문의 주요 과제 발표

당서기이자 문화관광부 부장인 후 허핑(Hu Heping)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공산당 건립 100주년과 14개 5년 계획의 시작을 기념해 문화·관광 부문의 주요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사회주의 핵심가치로 문화·관광 선도, 중화문명의 기원과 특질에 대한 조사와 심층 연구 수행
- 문화와 관광을 융합해 현대 관광업 체계 구성, 대중관광·스마트관광의 발전 촉진, 관광산업 구조 최적화, 관광상품 공급 혁신, 국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켜 강력한 국내시장 형성
- '관광 스팟', '시골 관광', '수학 여행' 콘텐츠를 주력으로 개발, 관광 공공 서비스 개선, 관광 서비스의 품질 향상
-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체계 보완, 고고학 발굴 사업 강화, 중국 고고학 등의 프로젝트 실시

(출처 : 문여중국, 2021.3.10.)

빙설관광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발표

중국 문화여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체육총국은 '빙설관광 발전 행동계획(2021-2023년)'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의 이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빙설관광 상품공급을 확대해 빙설관광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빙설관광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행동계획'의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로 제시됐다. 첫 째는 우수한 빙설관광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빙설 테마관광

리조트와 A급 관광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하계 관광 서비스 산업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징장(京張, 베이징과 장자커우)의 체육·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가속화하고 빙설관광 테마의 관광 상품을 출시해 빙설관광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빙설관광 소비의 잠재력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은 관광단지에서 빙설관광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빙설관광 소비 인구를 육성·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빙설관광 서비스 복합체를 구성해 국제적 영향력을 보유한 선도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형 빙설관광 기업과 클럽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행동 계획'은 각 지방의 특색 있는 '아이스 데이(빙설의 날)' 행사 방안을 모색하고 빙설관광 브랜드를 구상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빙설관광과 관련 산업의 융합으로, 빙설관광과 문화, 교육, 장비제조, 과학기술 등의 융합을 추진하고, 빙설문화 관련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은 빙설 연수관광과 겨울캠프의 활성화, '인터넷+빙설관광'의 발전 유도, 빙설 장비·기자재 제조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로 '행동계획'은 빙설관광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빙설관광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동계획'은 각 지역의 빙설관광 교통인프라 강화, 빙설관광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응급 안전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빙설관광의 발전을 위한 기반 수립이 강조했다. 이는 빙설관광 교육기관과 관련 과정의 개설을 장려해 빙설관광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장비·시설·장소 등 각 분야의 표준화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 중국 문화여유부, 2021.2.8.)

러시아

러시아관광청,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3차 캐쉬백 제도 시행

러시아관광청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3차 캐쉬백 제도에 환급제도를 신설해 여행상품 구매 후 변경되는 요건에 대해 일정금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구매한 여행상품에 대해 일정이나 숙박 등 부분 변경이 있어도 일체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된 제도에서는 변경하는 여행상품 가격에 비례하는 캐쉬백이 지급될 예정이다. 러시아관광청은 최소 2박 이상의 여행상품을 국내카드결제시스템(MIR)으로 구매한 경우만 결제금액의 20%(최대 2만 루블, 약 3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 atorus, 2021.2.2./2021.3.23.)

여행사 공동연합기금의 2021년 의무납부액 사실상 면제

여행사들의 공동연합기금인 'Tourhelp'의 의무납부액이 전년에 이어 올해도 1루블(약 15원)로 결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이 위축되면서 사실상 해당 납부액을 면제한 것이다. 하지만 아웃바운드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2020년 실적 기준으로 총 판매 금액의 0.25%를 2022년 4월 1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본래 해당 기금은 아웃바운드 여행상품에 대해 1%에 상응하는 금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금 납부액을 낮춘 것이다.

(출처 : 러시아 여행업협회, 2021.2.17.)

터키

이스탄불 숙박시설의 84%가 '안전한 여행 자격증' 취득

이스탄불 주지사는 이스탄불 내 1,028개의 숙박시설 중 861개(전체의 84%)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인 '안전한 여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148개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됐고, 6개 시설은 폐쇄됐다. 한편 터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7월에 객실 50개 이상 규모의 모든 숙박시설들은 2021년 1월 1일까지 '안전한 여행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처: TRTHaber, 2021.2.10.)

태국

백신여권 검토와 지역·호텔 격리 추진

태국의 백신접종이 2월 28일에 시작됨에 따라, 프라윗(Prayuth Chanocha) 총리는 외무부와 공중보건부에 백신여권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정책은 우선 정부가 국내 백신접종자에 한해 인증서 형태로 발행하고, 추후 인증서를 '백신여권'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골프격리(Golf Quarantine)¹, 빌라격리(Villa Quarantine)²에 이어 지역·호텔격리(Area Hotel Quarantine)³를 제안했고,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CCSA)가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지역격리 대상지역은 푸켓, 촌부리(파타야 포함), 끄라비, 치앙마이, 수랏타니(꺼사무이, 꺼따오, 꺼팡안 포함) 등이다.

1. 골프격리(Golf Quarantine) - 시행 중

- 외국인 골프(가족, 친척 등 동행가능)의 건강증진활동 위한 입국 목적의 격리
- 5일차부터 골프 가능
- 총 6개 골프장 선정: 마이다, 에버그린힐즈 (이후 포기), 블루스타, 아티타야, 사왕, 아티타야 치앙마이
- 2월 18일 첫 그룹이 입국했고, 한국에서 41명의 골프관광객들이 아티타야 골프리조트 입국
- 골프격리는 태국에서 시행한 외국인관광객 격리정책의 시초로 언론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고, 지난 3월 2일 관광체육부 피맛 장관은 한국인 관광객의 골프격리 장소인 아티타야 골프리조트 직접 방문

2. 빌라격리(Villa Quarantine) - 시행 중

-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새로운 격리방법으로 격리 동안 리조트 내 활동 허가
- 최초 5일 간은 실내에서, 6일차 이후는 호텔 부지 내에 있는 레스토랑, 스파, 수영장, 전용비치 등 이용 가능
- 2월 21일 푸켓 씨판과 리조트로 59명의 관광객(영, 미, 프, 핀란드) 첫 입국

3. 지역·호텔격리(Area Hotel Quarantine) - 추진 중

- 빌라격리의 상위개념으로, 지역과 호텔을 지정해 격리기간 동안 호텔 내에서 활동을 허가

- 최초 3일간 격리 후 호텔 내에서 시설 이용과 이동 가능
- 푸엣 촌부리(따타야 포함), 수랏타니(까사무이, 까따오, 까팡안 포함), 끄라비, 치앙마이외의 50여개 숙박시설이 발라거리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안하며 프로그램 참여 희망
- 관광체육부는 백신여권 도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그 이전까지 지역격리를 관광업계회복의 대안으로 제시

(출처 : Thairath, 2021.3.1/3.4/3.5., Prachachat, 2021.3.9.)

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코로나 자유통로' 통해 관광지 개방

인니 정부는 '코로나 자유통로(Free Covid19 Corridor)' 프로그램을 통해 발리를 포함한 일부 관광지의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창의경제부는 발리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중국과 싱가포르처럼 그린존 중심의 개방을 협의 중이라며, 3월중으로 외교부, 법무부, 코로나19 대응팀 등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리 주정부는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누사두아, 우붓 등 그린존을 우선적으로 개방해, 늦어도 5월에는 국내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CNN Indonesia, 2021.3.2.)

아르헨티나 관광상품 사전판매정책의 해외관광객 확대적용 검토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2021년 휴가시즌 관광상품을 사전 구매한 관광객들에게 50%의 비용을 환급하는 정책(Plan PreViaje)을 시행했다. 60만 명의 국내관광객이 사업에 참여했고, 정부는 관광부문에 150억 페소(약 1850억 원) 투입 효과와 비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체육부 마티아스 람멘스(Matias Lammens)장관은 이번 정책을 해외관광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방침을 이행할 시, 30억 페소(약 371억 원)의 투자로 4억 달러(약 4,500억 원)의 외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La Nacion, 2021.3.9.)

관광업계 중소기업 대상 무이자 융자 정책 발표

아르헨티나 생산부와 관광체육부는 아르헨티나 국립은행과 함께 관광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의 무이자 기간을 포함한 24개월 특별 융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관광업은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위기상황에서의 경영 지원을 위한 생산개발기금(Fondo Nacional de Desarrollo Productivo)이 투입된 것이다. 대출금은 1개 기업당 최대 1,000만 페소(약 1억 2,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출처 : 아르헨티나 관광체육부, 2021.3.8.)

미국

캘리포니아, 4월부터 야구장과 디즈니랜드 입장 허용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 보건국은 4월부터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각종 테마파크와 야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테마파크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우선 개방되고, 영업 재개를 허용하되 입장객은 정원의 15~35%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디즈니랜드는 4월 말 경에 재개할 예정이다.

(출처 : yahoo entertainment, 2021.3.10.)

브라질

관광부, 농촌관광 지원과 홍보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브라질 관광부는 농림축산부, 플루미넨세 연방대학교(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와 협력해 브라질 농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브라질 5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치즈, 와인, 맥주, 아마존 지역 과일 등과 관련된 제품들을 선별하고 농촌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는 콘텐츠도 기획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 관련 농업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브라질 관광상품을 다양화하고자 하며,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한 기술지원과 생산자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브라질 관광부, 2021.3.4.)

UAE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 발표

아랍 당국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각 도시별 구체적인 정책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시설 폐쇄와 수용인원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부다비는 파티·모임 금지, 영화관 폐쇄, 레스토랑·커피숍·호텔·공원·해변 이용을 정원의 60%이내로 제한했고, 두바이에서는 유흥시설(pub, bar) 영업을 중단했고 영화관·체육관 등 실내이용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50% 이내만 가능하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은 4월 중순 라마단 초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두바이의 위기 및 재난 관리 최고위원회는 음식점의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호텔 투숙객을 정원의 70%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이 지속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두바이 관광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무관용 정책을 채택했고, 두바이 경찰, 두바이 시, 경제개발부(Dubai Economic Development, Dubai Economic)와 협력해 합동 점검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두바이 관광부는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주민과

방문객에게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3월 8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자만 전시회, 국제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페스티벌, 이벤트 등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출처 : khaleejtimes, 2021.2.20./2021.3.8., timeoutdubai, 2021.2.26., wam, 2021.3.8.)

베트남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관광활동 축소

베트남 각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관광활동을 축소하거나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단호아와 뚜옌짱은 초봄 축제, 안장과 건터는 제야 불꽃축제를 중단하고, 하노이와 닌투언은 신축년맞이 일부 활동과 봄 축제를 축소했다. 또한 호치민은 2월 9일 12시 이후 문화·체육·오락 등의 서비스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팡남성 호이안시 인민위원회는 문화·예술·체육·오락 활동과 신축년 제야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이번 재유행의 중심 감염지역 중 하나로 확정된 팡닌성은 공공장소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문화·체육·오락 활동을 중단시키고 유적지·종교시설을 휴관시켰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투르키스탄 지역 경찰 대상 관광교육 프로젝트 시행

지난 2020년 11월 30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투르키스탄 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방안 강구와 함께 혁신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시했다. 이에 문화체육부는 국제관광대학교¹와 협력해 지역 관광객에게 안전한 체류보장과 카자흐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등을 목표로 관할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관광부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관광교육 프로그램은 총 7개월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기초 영어회화, 지역 역사, 국제관광 에티켓 등 관광이론과 관광객 환대 태도를 중점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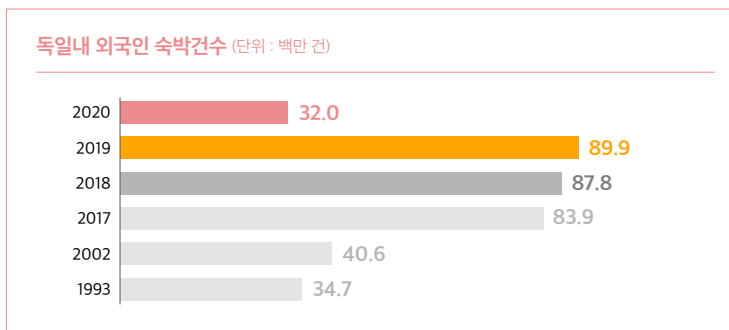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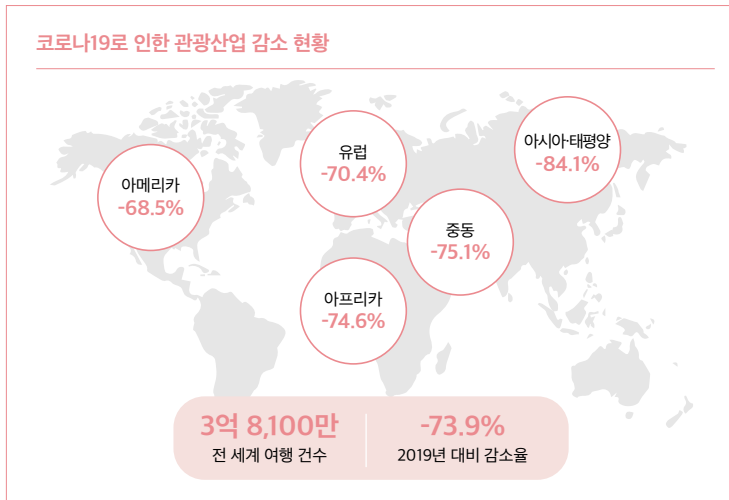
1. 국제관광대학교:
투르키스탄의
관광개발을 위해
2020년 6월에 신설된
문화체육부 산하 교육기관

5. 문화체육관광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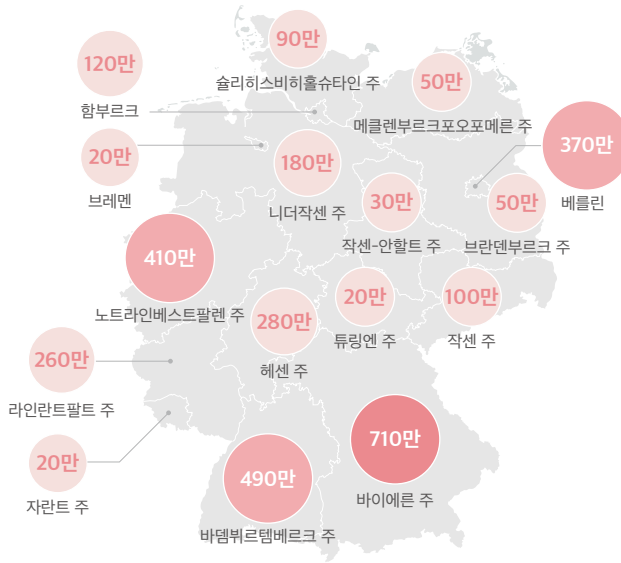
독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독일 관광산업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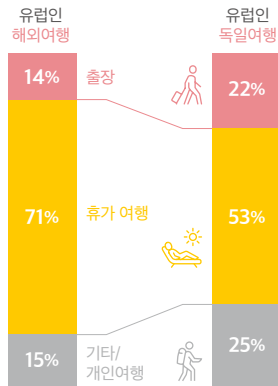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된 가운데, 2020년 전 세계 여행건수는 3억 8,100만 건으로 전년대비 73.9% 감소했다. 지난해 독일 내 외국인 숙박건수는 3,200만 건으로 전년대비 64.4% 감소, 1993년도의 3,470만 건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유럽인의 여행은 휴가 여행이 가장 많았고, 전체 독일 여행 중 출장 목적의 여행은 22%를 차지했다. 2020년 독일 출장건은 530만 건으로 전년대비 -60%를 기록했고 특히 박람회와 회의 참석 관련 출장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유럽 내에서 독일 여행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동차(56%)와 항공편(25%)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 예약은 대부분 인터넷(84%)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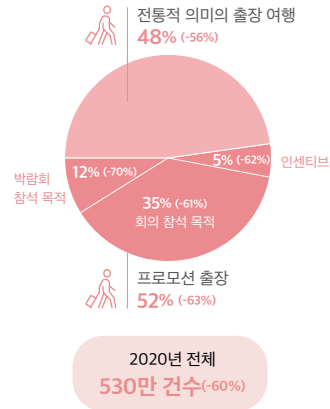
독일연방 16개 주별 외국인 숙박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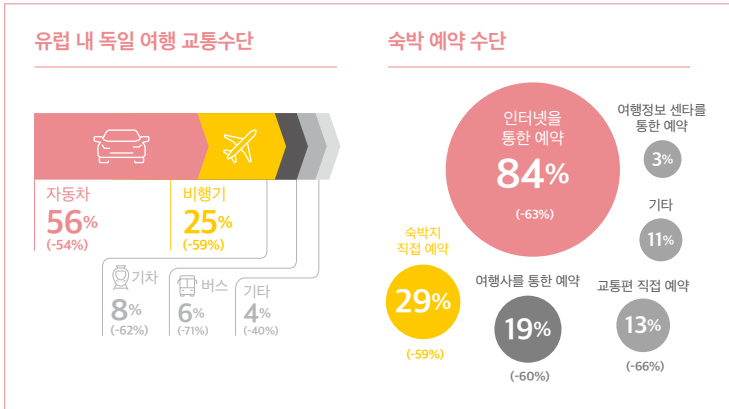


여행목적에 따른 비교



2020년 독일 출장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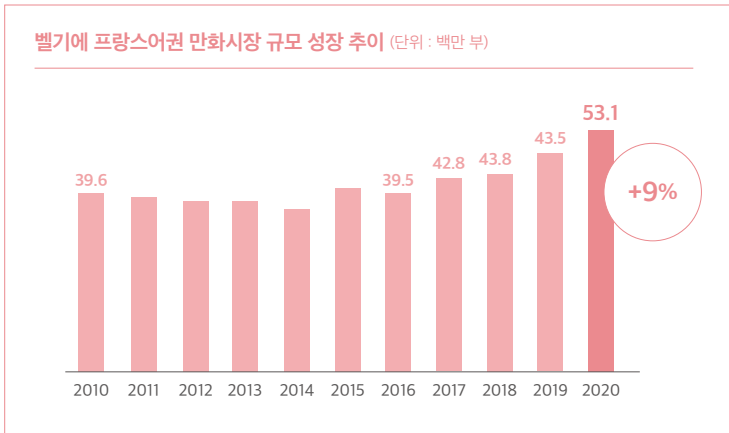


(출처: 독일관광공사)

벨기에

벨기에 만화시장의 성장

벨기에 만화시장의 규모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이미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프랑스어권 만화시장의 경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네덜란드어권에서 출판되는 만화책은 2020년 1,410개로 해마다 증감의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벨기에 네덜란드어권 만화책 출판 추이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판본 수	1,270	1,232	1,443	1,465	1,528	1,497	1,410

(출처: ActuaBD, 2021.128.)

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바이든 정부에서 첫 문화부 장관이 탄생할까?
2. 포용적 회복 가이드-코로나19의 사회문화적 충격(issue2: 문화 관광)
3. 예술의 재개장 : 예술단체의 최신 사례와 지침

바이든 정부에서 첫 문화부 장관이 탄생할까?

2021년 1월 20일, 제 46대 조셉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불법 점거 사태가 발생한 국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취임식은 예의 축제 분위기와는 다르게 비장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삼엄한 경계 아래 코로나19와 추가 폭력사태 우려로 인해 인파를 제한하고, 빈자리에는 성조기와 50개 주의 주기가 꽂혔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전통을 깨고 참석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결과 불복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등 '어둠의 시기'를 잠시 뒤로 하고 통합과 치유를 앞세우며 4년간 펼칠 국정 운영 구상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펼쳤다. 그리고 취임행사를 마치자마자,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대응책,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등 전 정권의 정책을 철회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시급한 국내 현안 해결과 함께 국제 사회 주도권 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이 지난 4년간 방치되다시피한 문화예술 부문의 정책 변화이다. 양분된 미국 사회의 분열 치유와 통합의 문화예술이야말로 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장관의 부재 : 미국 정부 조직에는 문화담당 부처가 없다

미국 정부 조직에는 문화예술을 직접 관할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5명에 이르는 각료 중에 문화관련 장관은 없다. 문화를 담당하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각 정부 기관과 그 산하 단체의 내부 조직으로서 전국 단위로 산재해 있다. 하지만 일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재원을 배분하고 그 성과를 책임지는 연방조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규모는 항상 논란거리이다.

미국 경제분석청에 따르면, 미국의 문화예술 시장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약 8,770억 달러(약 997조 원) 규모로 500여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기준으로 보아도 문화예술 분야는 국내 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면서 농업이나 교통 분야보다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생산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은 이들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비교를 하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열악한지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약 60여 개국은 문화부 또는 문화-교육부, 문화-정보부 등의 간판을 내건 ‘문화부처’를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면서 각국의 ‘soft power’를 경쟁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최대 예술 지원 조직인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과 60여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청의 1년 예산을 합해야(총 33억 달러, 약 3조 7,000억 원) 미국 인구의 20%에 불과한 프랑스의 문화부 예산과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더욱이 독일이 지난해 문화부 예산을 20억 달러(약 2조 원) 증액한데 비해, 미국 정부는 국립예술기금의 예산지원마저 전면 중단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등 국제 추세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미 정부의 지원은 인색하다 못해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문화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치명타를 입은 이곳 예술인들에게 최근 주요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영화·공연 지원 현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주요 문화 강국들의 위기 극복 사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주요 문화 기관들의 재정 지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

누가 뭐라 해도 뉴욕은 세계의 수도로 불리며 경제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유럽은 수백 년 동안 누려왔던 세계 문화의 ‘Happening Place’의 지위를 미국에 넘겨야 했다. 전란을 피해 많은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창작 활동의 터전을 옮겼고 엄청난 양의 문화 자산들이 헐값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국은 문화예술의 변방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를 등장시키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거대한 미래 산업으로 키울 수 있었다. 1950년대부터 도약한 영화, TV, 미술, 음악 사업은 한때 전 세계 시장의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기술력과 사업 수완으로 무장한 민간부문이 막대한 이익 창출과 동시에 문화 전파의 전령 역할도 함께 수행해 왔던 것이다. 모든 상거래 기법이 발달한 뉴욕을 거점으로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각종 예술시장은 월스트리트와 함께 막대한 자금력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대 투자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정부의 개입 여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각종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되는 공공자금보다는 민간 부분의 막대한 기부와 후원금이 든든한 재원으로 선호됐다. 자선활동을 명분으로 각종 기부나 성금을 통해 통 큰 민간지원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은 ‘채테크’나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에 비해 민간 비중이 커진 데에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도 제외할 수 없다. 미국인에게는 자유정신과 창조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세금이라는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오랜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예술분야는 공공부분의 독려 대상이기 보다는 오히려 되도록 그 영향력 밖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정부가 만들어 낸 산물이 아니라는 논리인 것이다. 전쟁을 치루면서 괴벨스가 이끌었던 나치 독일의 선전부나 구소련의 체제 선전에 대한 경험도 문화관련 부처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다.

각국 문화원을 상대할 미국의 대표 기관이 없다

필자가 뉴욕에 부임한 이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120년 전통의 뉴욕 아트 클럽(New York Art Club)의 운영을 보더라도 민간 주도의 문화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주관은 비영리 단체인 아트클럽이고 참여자는 뉴욕주재 주요국 문화원장이나 UN에 파견된 문화영사들이다. 그러나 미국 문화계를 대표할 만한 정부 채널은 없다. 회의에 참여해서 이점을 궁급해 했더니 “미국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트클럽은 회원 간 정보교류와 협업 가능성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지만, 현직인이 선호하는 분야는 어떤 것이고 각 문화원이 어떻게 효율적인 문화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모색할 만한 적당한 창구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좋든 싫든 각종 협업이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나 링컨 센터, 카네기 홀 등과 직접 접촉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업이 쉽지 않은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미래는 예술에 달려있다. 예술은 우리 영혼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 바이트

문화예술계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트 1기 내각에 문화부 장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행정부 아래서 그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심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기대하고 있는 것은 1982년 연방 조직으로 창설된 대통령 직속 예술인문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의 기능 회복이다. 또 정부산하 독립기관인 국립예술기금과 국립인문학기금 등 핵심 지원기금의 역할과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이 두 기관은 공화당,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면서 존폐의 위기에 처하는 등 심한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일부에서는 유명무실해진 백악관 음악회 부활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예술행사를 통해 국가 지도자가 발신하는 문화 메시지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러 매체를 보면, 바이트 대통령은 비틀즈와 로드 스투어트를 ‘최애’ 가수라 하고, 아일랜드계 이민 후손답게 종종 아일랜드 시인 세이머스 히니(Seamus Heaney, 1996년 노벨 문학상 수상)나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를 인용하기도 한다. 부통령 시절의 국립현대미술관 설립같이 그의 문화적 유산 축적은 적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술을 경제의 원동력이자 정치력의 시발점 그리고 지역 사회의 주춧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을 떠안은 그가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재원과 정성을 할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조직의 통폐합이 수반되는 부처신설보다는 대통령 직속의 '문화담당 총괄(Czar)'이나 '특별 고문'같은 직제 도입을 유력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잡다한 문화담당 부서를 아우를 수 있게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치유와 통합의 도구이자 결과물로서 그 역할이 절실한 문화와 예술이 그에 걸맞게 미국 초대 문화부 장관의 탄생을 이끌어낼지, 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이곳 예술계의 요즈음이다.

포용적 회복 가이드-코로나19의 사회문화적 충격 (issue2: 문화 관광)

본 내용은 세계관광기구(UNWTO)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UNWTO Inclusive Recovery Guide Sociocultural Impacts of COVID-19 Issue 2: Cultural Tourism

발행 세계관광기구(UNWTO)

링크 <https://www.e-unwto.org/doi/epdf/10.18111/9789284422579>

요약

본 지침은 세계관광기구(UNWTO)가 유네스코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문화와 관광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19 이후 문화·관광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 디지털과 기술의 활용, 생활유산과 자연보호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관광수입의 손실이 지역사회, 문화유산, 문화행사 그리고 장소와 기관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경쟁력과 시장 차별화를 약화시켰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된 UN과 UNESCO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료에 대한 링크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

문화·관광을 위한 포용적 대응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은 전세계적으로 관광을 정지시켰고, 집에서 문화적 경험을 찾는 수백만의 사람들로 인해 문화는 더욱 중요해졌다. 가상으로 접하는 문화는 안락함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하지만, 문화관광 분야는 그 생태계가 영구히 손상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전통적으로 문화관광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오던 도시는 관광 제한과 폐쇄를 초래한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영향을 받았으나 혁신과 창의성으로 대안적인 방식의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농촌 지역(rural areas)의 관광은 여행객 밀집도가 낮으며 야외 체험이 가능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있기에 회복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19는 도시와 농촌 개발 사이의 본질적이고 불가피한 연결을 조명한 것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위해 예술가, 창작자, 관광·문화 전문가, 민간부분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열린 대화와 실시간 해결책을 제시하는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해결책이 현장에서 변창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외의 개폐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문화·관광 분야는 신속한 적응과 대응이 요구된다. 관광의 일시적 중단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기여하는 보다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그리고 자원효율적인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은 '202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창의경제의 해'라는 맥락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을 육성하며 모두에게 유익함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권고사항(Recommendation)

1. 문화·관광을 위한 시너지 촉진

• 회복과 대응을 위해 학습한 모범 사례 교환

관광과 문화는 디지털 전환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변경 등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규제 적응에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관광과 문화 분야의 협력은 실천(practices)을 강화하고 방문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공동 접근이 필요하다.

•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 구축

예술가, 문화 전문가, 지역 커뮤니티, 민간 부문, 관광지(destination) 대표들이 합심해 문화 관광지에 대한 공통된 비전에 공감하고 행동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조율이 필요하다.

•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문화 관광에 대한 공개 토론

문화 간 대화(intercultural dialogue),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착한 소비(responsible consumption)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해 관광지와 문화기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관광지를 위한 상생문화 지원

• 관광지에서 문화의 역할 강화

문화 상품과 경험은 관광마케팅 전략의 핵심이지만 비상 상황과 지원 계획에서도 동일한 비중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익 손실과 강제 폐쇄는 유산, 문화 행사, 시설, 기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관광지의 경쟁력과 시장 차별화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지역 문화와 창의 산업의 재발견

지역 사회와 재결합된 관광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국외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관광객을 다양화함으로써 장기적인 회복 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도시와 농촌 체험의 부흥

- 문화를 통한 도시 관광 육성

창의성과 문화다양성을 활용해 도시 관광의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재정 지원과 투자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 청소년, LGBTI, 이주민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참여가 중요하다.

-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 유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분산이 가능한 야외 환경을 모색해 농촌지역을 관광 선호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생활방식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수혜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도-농 간 이주를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 도시-농촌 연계 강화

도시-농촌 연결을 위한 허브로서 도시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관광 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너지와 협업, 관광의 도시-농촌 상호보완이 강화될 것이다.

4.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력적인 문화·관광 인력 구축

- 탄력적인 고용 정책, 교육, 전문 기술 향상으로 인력구조 개선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전문 인력을 고용·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탄력적인 고용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 접근과 사용능력 지원

전 세계 인구의 46%는 인터넷에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문화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여전히 불충분하다. 특히 여성, 청년, 원주민, 소외된 공동체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하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문화 창작자의 권리 증진

디지털 전환은 문화·관광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문화 보급을 표준화하는 위험을 내포한다. 다양한 문화관광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문화·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 유통과 판촉에 대한 전문 지식 개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창작자, 기관, 기업은 디지털시장에 제품과 경험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신생 기업과 주요 업체와의 제휴는 경쟁 우위를 가져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미디어 파트너와의 제휴

접근이 제한된 관광지의 맞춤형 가상현실 체험, 관광지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소셜 미디어와의 제휴, 혹은 보다 안전한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관광분야 단체는 미디어·기술 전문가와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관광을 위한 종합적인 장소기반 접근법 도입

문화유산, 미식가, 디자인 패턴, 지역문화 표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행지의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관광체험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 창작자, 문화 실무자, 지역주민이 관광 정책과 실행(practices)을 형성하는 데 관여할 수 있게 해준다.

6. 생활유산(living heritage)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관광 육성

• 지역사회의 문화 실무자와 생활유산에 대한 제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책 입안자부터 관광 전문가, 관광 사업자, 여행사 등 관광분야 관계자들은 지역사회 문화 실무자와 생활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 생활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 사회와 실무자의 역할 보장

코로나19는 생활유산과 관련된 관광 경험을 재고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생활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이를 위해 관광경영에서 지역사회와 실무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실무자가 적극 참여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관광 이니셔티브 개발

미래세대에게 생활유산을 전승 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자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관광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광산업에서 생활유산이 어떻게 지역사회와 실무자들의 생계를 보존하며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관광 전략과 관리에 지역사회 관계자와 문화 실무자의 적극 참여

지역사회 관계자와 실무자는 생활유산을 통한 문화관광의 발전과 관리 부문에 적극 투입되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모두를 위한 문화·관광 회복 촉진

• 계획 설정과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생성·수집

객관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해 정책의 지원, 결과 평가, 향후 계획 수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영향과 지원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관광 회복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될 수 있다.

8. 문화 보호의 핵심은 자연 보호

• 문화관광지의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자연은 문화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무대이자 영감의 원천이다. 또한 원주민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 등 문화적 표현들이 존속하기 위해 관광지의 자연유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관광객 교육

방문객은 관광지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 지역을 존중하고 주의하도록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방문객의 관광 경험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책임감을 향상시켜 관광지의 자연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의 재개장 : 예술단체의 최신 사례와 지침

본 내용은 미국 국립예술기금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원제 The Art of Reopening: A Guide to Current Practices Among Arts Organizations During COVID-19

발행 미국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Arts)

링크 <https://www.arts.gov/sites/default/files/The%20Art-of-Reopening.pdf>

요약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Arts)은 다양한 예술분야, 예산 규모,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예술 단체와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관객이나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예술단체의 공통적인 실행(practices)을 확인했다. 2020년 4월 국립예술기금은 예술분야의 16개 국가서비스단체(National Service Organizations, NSOs)를 대상으로 공중보건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 재개할 준비가 되었는지 조사했다. 그 후 2020년 9월, 국가예술기금은 동일한 단체를 대상으로 후속조사를 실시해, 재개장 정도를 파악하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예술가, 직원, 후원자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무하는데 있어 공통적인 과제와 해결책을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객들에게 성공적으로 재개한 예술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중요성과 예술가의 사회적·정서적 웰빙을 최우선의 이슈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인터뷰 외에도 예술분야 국가서비스단체의 설문조사와 문서자료, 예술경영 컨설턴트의 자문을 참조해 재개장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많은 예술 사업체는 건강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의무 제한으로 인해 문을 닫았다. 아메리칸 포 더 아트스(American for the Arts)의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비영리 예술단체의 41%가 2020년 11월 초 재개장한 반면, 59%는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자료를 결합해 재개장하려는 예술단체에게 조언과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예술단체들이 가상의(virtual)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이러한 시행은 광범위한 시각에서 재개장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이어, 국립예술기금의 연구분석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관객에게 성공적으로 재개장한 예술단체 관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수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다양한 예산규모와 예술분야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 선정됐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예술단체가 방문객에게 재개장하기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교훈(key lessons learned)

1. 인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예술단체는 실내외 프로그램, 가상 예술(virtual art) 참여 혹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예술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요구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집회와 여행의 제한이 사람들을 집 근처에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접근 보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술에 더욱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있는 라이드 공연예술센터(Lied Center for Performing Art)는 링컨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이동식 음악 무대를 제공했고, 뉴욕주 사라낙 레이크의 애디론덱 글쓰기 센터(Adirondack Center for Writing)는 물에 젖었을 때만 색이 드러나는 특수한 페인트로 보도에 시(poem)를 그려넣음으로써 현지인의 지역 만족도를 높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관객의 참여는 많은 예술단체에게 수익을 위한 필수적인 원천인 동시에 예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2. 의료 전문가와의 협업(The doctor is “in”—or should be.)

재개장 전략에 대해 조언할 공중보건 전문가 혹은 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개장을 실시한 예술단체는 방역 안전과 테스트 프로토콜에 대해 지침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일부는 전문지식을 위해 지역 대학 의료센터 혹은 지역 병원과 제휴하여 코로나19 검사 회사와 직접 협력했다. 이러한 의료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은 예술단체들이 기관의 지침을 선별하고 각 단체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격리가 아닌 신뢰(Isolation? More like “quality time.”)

예술가를 위한 ‘버블(bubble,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소규모 그룹)’이나 ‘팟(pod, 그들끼리만 교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룹)’은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술가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 공연장에서 예술가와 스태프를 격리하거나 예술가들을 소규모 비접촉 그룹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소규모 격리 그룹 지정과 같은 사회적 고립은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만, 신시내티 발레단의 무용수들이 무대로 복귀한 것처럼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신시내티 발레단은 방역 지침에 따른 안전 프로토콜을 도입한 것 외에도 무용수들을 위한 격리 그룹을 생성했다. 발레단은 리허설동안 무용수들을 8개 이하의 소규모 비접촉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이 지정된 공간(스튜디오, 욕실, 복도)만 사용하고 타 그룹과 접촉할 수 없도록 리허설 시간을 조정했다. 또한 발레단은 기술의 도움으로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예술가와 예술 관리자를 가상으로 연결했다. 리허설공간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스태프와 무용수들이 가상으로 소통했으며, 발레단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용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무용수들이 다른 안무가와와의 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4. 정보의 투명성으로 비상상황 대처

예술단체는 새로운 환경과 정보에 적응하고, 이를 예술가, 스태프, 이사진, 후원자, 일반 대중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많은 예술단체들은 직원 및 후원자들과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했다. 재개장 과정에서 예술단체들은 일반적으로 결정내리지 않고, 직원, 이사회, 그리고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상의하고 재개장 과정의 모든 단계를 관객과 후원자에게 알렸다. 버크셔 극단(Berkshire Theatre Group)의 닉 팔로고스(Nick Paleologos) 전무이사는 재개관을 고민하는 다른 극장은 노조와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투명하고 협력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주차나 텐트 허가 등 다방면에서 지역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들과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5. 조직의 미션과 비전 공유

문화예술단체의 미션과 예술에 대한 비전을 다시 공유하는 것은 재개장 전략에 탄력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버크셔 극단(Berkshire Theatre Group)은 2020년 6월 중순 「갓스펠(Godspell)」 제작의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공연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관계자는 이사진들이 버크셔 극단이 거의 100년 동안 존재해 왔고, 대공황과 세계대전, 9/11 테러 등 무수한 위기를 이겨내며 성과를 거둔 조직임을 인식했으며, 마치 형제자매의 무리처럼 느낀 고무적인 회의였다고 회상했다. 자신의 임무와 예술적 비전에 집중하는 단체들은 지역 사회(community)의 예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번영하기 위한 공동체의 지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애디론덱 글쓰기 센터(Adirondack Center for Writing)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지역 시인들이 쓴 시마을 시리즈(Poem Village series)의 시를 구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무수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또한 센터가 주간 일정에 따라 '작문 과제(writing prompt)'보낼 때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됐다. 센터는 시를 읽는 것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 일인지 알았으며, 이는 추후 후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6. 미디어·기술 전문가와의 협력

미디어·기술 조직 또는 미디어·기술에 정통한 예술가와 협력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몇 달 동안은 작품이나 프로그램을 가상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컸으나,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전문지식도 소프트웨어도 장비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한 일부 예술단체는 온라인 전시 경험이 있는 예술가와 협업하거나 장비와 전문 지식을 갖춘 팀과 제휴했다. 컨설팅 회사인 TDC의 수잔 넬슨(Susan Nelson) 부사장은 예술단체들이 공연 예술에서의 디지털 전략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모두 동의한다며,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주요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II

이달의 담론

팬데믹 이후 뮤지엄 관람 문화의
변화와 향후 전망

팬데믹 이후 뮤지엄 관람 문화의 변화와 향후 전망

들어가며- 격리의 역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2020년 1월 이후, 공적 영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기능하던 뮤지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례 없는 운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유증상자와의 접촉 또는 오염된 표면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라는 코로나19의 전염 공식은 감염자 수의 정도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의 불규칙한 조정을 야기했다. 이는 오프라인 방문을 기반으로 한 뮤지엄 운영의 제도적 정상화를 쉽게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운영주체에 따라 위기의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뮤지엄들은 관람자의 부재로 인해 기존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뮤지엄 관계자들은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람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방식의 다변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면 접촉 서비스의 가능 여부에 의해, 온·오프라인 방문이라는 선택지가 제시하는 공간 경험방식의 변화를 관람자 주권의 맥락에서 공론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의 뮤지엄이라면 물리적인 실체이자 실제적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특수한 상황은 문화적 수혜자이자 비용 부담자로서 공적 권위를 가진 관람자들을 위한 유무형 서비스의 효율적인 양적, 질적 분배를 점검해야하는 실정이다.¹ 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뮤지엄의 존재 이유와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격리(quarantine)의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뮤지엄은 자신들의 핵심 고객인 관람자들에게 제공할 대안적 차원의 관람 문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비영리를 표방하는 항구적 기관으로서 공중(public)의 능동적 참여를 장려하고 공동체 통합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뮤지엄의 폐쇄가 오히려 관람자와의 차별화된 양방향적 소통의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류행위를 가정한 관람문화의 양태를 물리적 예방환경과 디지털 플랫폼 환경이라는 뮤지엄 내외부의 사안으로 설정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공적 자금의 지원 유무나 운영주체의 차이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문화적 경향임과 동시에, 관람문화가 예술가(생산자)-운영자(매개자)-뮤지엄 전시물-관람자(소비자)로 소급되는 다자간의 유기적인 의미 교환 활동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뮤지엄 내부의 관람 문화- 물리적 예방환경 구축

코로나19 이후의 뮤지엄 관람 문화를 조명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외부인의 입장을 정책적 차원에서 일부 허용한다는 전제가 뒤따른다.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 수준의 재정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관람자의 경우

¹ 박소현, 「일본 미술관에서의 '공공성' 대논쟁: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문화예술경영학회 가을학술대회 자료집』, 2009, 18-19쪽.

복수(複數)의 사람들이 규격화된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두고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람자는 물론 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바이러스 전염의 위협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예방환경의 구축이 각 뮤지엄들의 지상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관람자의 공간 내부 유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존성이 큰 기관일수록 이 사안에 대한 민감도는 더할 수밖에 없다.

뮤지엄들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 관람자의 방문 시 고려하는 예방환경은 예상할 수 있는 물리적 접촉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데서 비롯된다. 다만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세제제 비치 등의 조치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뮤지엄들은 관람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공공기관들 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성격이 강한 곳들을 대상으로 감염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이용자인 관람자 그룹과 책임자인 뮤지엄 종사자 그룹이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재개관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온라인 서비스 확충, 일정 거리 유지, 집단 활동 금지, 예약제도 운영 등을 들고 있다.²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도 전 세계 뮤지엄 협회에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관람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조치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 중에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방문 가능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위생 조치 강화(strengthening health measures)'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계층의 범주와 상관없이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야기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해체와 공기 매개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에어컨과 같은 공조시설의 전면 비가동 조치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시설(예: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제공된 기기나 이동을 위해 설치된 승강기에 부착된 조작 버튼)에 대한 항바이러스 조치를 동시에

요구한다.³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상 사회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배제의 대상들을 포용해 누구든 접근 가능하면서도 공평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아트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폐관을 감행했던 유럽의 뮤지엄들이 재개관과 관람자 방문을 위해 어떠한 유무형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⁴ 특히할만한 사례는 독일의 코트부스 브란덴부르크 현대미술관(The Brandenburg State Museum for Modern Art in Cottbus)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두기 권고사항인 1.5m 길이의 막대와 리본을 관람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관람자 그룹이 서로 다른 가구의 구성원(between members of different households)간에 허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혈연, 입양 또는 관습에 의해 구성된 친족 집단일 경우 예방 차원에서의 물리적인 간격 유지가 어렵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권장 거리를 바닥에 표시함으로써 관람자 간 일정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보장하며, 매표소에는 특수 아크릴 합성수지인 플렉시글라스로 제작된 보호막을 설치해 만약에 있을 바이러스 전파를 미연에 방지한다. 종합해 보면 일정 수준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 구분 마킹 패턴, 제한된 수의 관람자 그룹에 적용되는 선형적 관람 동선, 비말 차단 및 항바이러스 조치의 적용과 같은 물리적 예방환경의 구축을 명문화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실효적 제도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2판)」, 2020년 5월 27일, 103-104쪽.

3 ICOM, "Museums and end of lockdown: Ensuring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staff", http://www.icomkorea.org/board/bbs/board.php?bo_table=news&wr_id=179, 접속일: 2021년 3월 29일.

4 Alessandro Martini, "Five European museum directors explain their reopening strategies", The Art Newspaper, 2020.05.28., <https://www.theartnewspaper.com/news/the-long-road-to-normality>, 접속일: 2021년 3월 29일.

뮤지엄 외부- 온라인과 오프사이트의 성격을 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 확충

문제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뮤지엄이 폐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관람자의 방문이 없어도 지속가능한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해 뮤지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관 차원의 투자는 대면 통제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관람 문화의 지속성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 확충은 공간 안으로 관람자의 신체가 편입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사용자라는 또 다른 관람자 유형의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과 피드백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뮤지엄 경험이 조성되는 공간적 환경의 범위를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온사이트(on-site, 건물 내부)와 오프사이트(off-site, 건물 외부)로 구분할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과 관람자의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사이트가 구성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키워드 중 하나인 언택트는 비대면 문화의 상징 언어이기 이전에 현 밀레니얼 또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윤설과 조택연은 이들의 특징에 대해 디지털 매체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고, 적극적 정보 탐색을 통한 소비 행위에 능하며, 혼자이기를 원하면서도 소통을 원하는 독립적인 세대로서 소유보다는 경험과 공유를 중시하는 세대로서 적시한다.⁵ 이를 현 코로나19 상황의 뮤지엄 관람 문화에 대입했을 경우, 대면은 피하되 자신의 능동적인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가상적 미디어의 대표적인 유형인 디지털 플랫폼은 상당히 매력적인 소통의 창구로서 인지하기 쉽다.

그렇기에 뮤지엄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의 적극적 실천 주체로서 위치시키면서, 자가 격리 중인 온라인 사용자(관람자)의 관람 경험 증진을 위한 콘텐츠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알려진 대로 유수의 뮤지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물질성을 디지털 인프라의 비물질성으로 대체하고 공급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감형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에게 특정 문화의 대리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도입한 뮤지엄 관람 문화도 특기할만한데, 가상의 플랫폼에 실제 전시공간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 인터랙티브 체험형 전시관을 만들어 신체의 이동 없이 온라인으로 전시 관람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작년 9월에 대전에서 개최된 대전비엔날레는 '사회적 거리두기 친화형' 관람문화를 국내에 소개한 시원적(始原的)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뮤지엄의 정규직원 또는 외부위탁 형식으로 수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기에, 정부 차원의 사업계획이 부재하다면 현재로서는 다른 부서의 인원을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 전환해 온라인 사용자들의 콘텐츠 향유를 위한 수행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시 될 여지가 있다.

나오며- 공공성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 부문에서 거론되는 뮤지엄의 존립을 위한 일차적 전제 조건을 관람자의 유무와 결부시켰을 때, 팬데믹의 지속과 일상화는 뮤지엄 관람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혹자는 문화예술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뉴딜정책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문화예술 영역의 대표적 공공재인 뮤지엄 역시 수혜의 대상으로서 그 공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이는 관람자의 참여 방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적 편익이 보장받지 못하는 뮤지엄의 존재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비대면이 곧 공(公)과 같다는 이야기가

5 조윤설, 조택연, 『밀레니얼 세대의 공간 소비에서 나타난 특징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권, 1호, 2019, 417-418쪽.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것이 공공성의 척도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뮤지엄이 공공성을 대변하는 문화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공동의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매개하는 사회적 영역으로서 그 가치를 역사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뮤지엄에 전시된 유물들은 시대의 요청에 의해 수집되고 보관되는데, 이때 관람자들은 공동의 문화적 취향을 특정 장소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연대감을 부여받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존재는 실제의 뮤지엄을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국지화시키고, 유물의 보존이 아닌 콘텐츠나 웹 피드(web feed)의 관리체제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제 관람자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대면 접촉 기회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관람자들과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며 피드백을 교환하고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두고 여전히 특정 계층 또는 문명권의 독점적 전유물로 간주되는 상황 역시 존재한다. 또한 뮤지엄 운영에 있어 실물 자료에 비해 보조적 수단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조용하는 이상적인 관람 문화 체제 및 구조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I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4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국

○ 한국영화의 밤 [4.1. | 온라인]

- <반지하 살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화를 소개하고 김소이, 김꽃비 감독을 초청해 온라인 토크 진행

○ A Viewing Room: Artist films Online Screening

[4.6.~5.31. | 문화원 누리집]

- 비대면 전시의 일환으로 영상 작업을 주로 다루는 8명의 한국 작가를 선정해 작품 소개
- 코로나19로 인해 조명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시사점 전달

○ 르 꼬르동 블루 사찰음식 온라인 강좌 [4.27. | 르 꼬르동 블루, 온라인]

- 르 꼬르동 블루 정규 채식 과정의 일환으로 사찰음식 강좌와 법승 스님 강연

○ 한국문학의 밤 [4.28. | 온라인(ZOOM)]

- 시인 이상의 작품을 번역한 책 정 번역가와 현지 모더레이터를 초청해 시인 이상의 시를 낭송하고 온라인 대담 진행

○ 하우스 콘서트 [4.29. | 문화원 유튜브]

- 영국 왕립음악원 한인 연주자 송지수 외 2인(우하영, 조성원)의 공연을 문화원 유튜브에서 공개

○ 제2기 KCCUK Creators [3월~11월 | 온라인]

- 한국 유튜버를 선정하고 영상 장비와 스튜디오 공간을 지원해 한국문화 관련 영상 확산과 한류커뮤니티 양성 독려

프랑스

○ 프랑스 내 한류 컨퍼런스 [4월 중 | 문화원, 온라인]

- 한국 영화, 한류 동호회, 프랑스인이 선호하는 한류, 프랑스 내 한국콘텐츠 확산 현황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

○ 프랑스 한-불 친선회 상원의원 간담회 [4월 중 | 문화원]

- 프랑스 한-불 친선회 상원의원 초청해 <한국의 궁>, <프랑스어 안데스 작가 개인전> 전시 관람

- 유명 한식 셰프(피에르 상)를 초청해 한식 리셉션과 김치 홍보 진행

벨기에

○ BIFFF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협력 [4.6.~4.18. | 영화제 온라인 플랫폼]

- 세계 3대 판타스틱 영화제 중 하나인 BIFFF와 협력해 한국 장르영화 8편 상영회 개최, 감독 Q&A, 언론 인터뷰 등 진행

○ <서울에서 살으십니다(Megs Seoul 4Decades)> 전시

[4.5.~5.12. | 문화원, 온라인]

- 196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전통이 몰락하고, 파괴와 건설이 끊임없이 일어난 수도 서울의 모습을 원로, 중견, 신진 사진작가 12인의 다양한 시선으로 소개

○ ‘서울’을 주제로 한국학 강연 시리즈 개최 [4.19.~4.29. | 온라인]

- <서울에서 살으십니다(Mega Seoul 4 Decades)> 전시의 일환으로 루벤 대학, 레이덴 대학과 협력해 ‘서울’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 개최
- 파트릭 모뤼스(문학), 강영지(건축), 김혜영(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 초청

○ MOOOV 영화제 협력 <한국영화 온라인 상영회> 개최

[4.20~5.3. | 영화제 온라인 플랫폼]

- 국제경쟁부문 진출작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 상영회 개최, 홍보

독일

○ SNS로 보는 한국문화 [4.1., 4.5. | 온라인]

- 부활절을 기념해 한국의 토끼 설화 『별주부전』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배포, 관련 퀴즈 이벤트 개최
- 한국의 식목일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배포, 관련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식물 관련 한국 상품 증정

○ 온라인 한국문학 클럽 [4.7. | 온라인]

-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토론

○ **한국문화 in Motion [4.28. | 온라인]**

- 전통 한복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

○ **우리_함께 연주회 [4.30. | 온라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주재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주자의 릴레이 연주회
- 신승훈(피아노) 연주자의 온라인 연주회 진행

이탈리아

○ **온라인 한국문학작품 독후감 대회 개최 [4.12.~5.2. | 문화원 이메일]**

- 이탈리아어로 번역·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독후감 대회 개최
- 번역된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 이메일로 감상문 제출, 우수작 수상

○ **실시간 온라인 공연 <Dilemma> [4.28. | 문화원 유튜브]**

- 피리, 소리, 춤 타악기를 활용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국악팀 클랜타몽의 공연

○ **온라인 한국영화 상영회 [4.28.~4.29. | 문화원 누리집]**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해 홍상수 감독의 영화 <하하하(2010년 작, 김상경·유준상 주연)> 상영

○ **김장 홍보 및 김치문화 사업관 영상 제작·배포 [4월 | 문화원 유튜브]**

- 한국문화홍보대사 코스탄티노 델라 게라르데스카, 현지 음식 블로거 등이 출연해
구선영 요리사에게 김장을 배우고, 김치를 활용한 퓨전요리 영상을 제작, 배포

○ **내가 사랑하는 한국(Korean Dream) 영상 시리즈 제작·배포 [4월 | 문화원 유튜브]**

- 한국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해 총 10편의 시리즈로 제작
- 4월 중 제1화 <대학생> 편 게시 예정

○ **온라인 뉴스레터 <Corea Today> 4월호 [4월 | 문화원 누리집, SNS]**

- 2020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자단과 일러스트를 활용해 한국문화에 관한 원고 작성
- 매 월 6,200여 명의 문화원 뉴스레터 회원에게 배포

○ **온라인 재이한인미술가협회 정기 전시회 [4월 | 문화원 유튜브]**

- 재이한인미술가협 회원의 회화, 조각 등을 가상 전시공간에서 전시회 개최

스페인

○ 한국 동화 구연 프로젝트 [4.1., 4.5. | 온라인]

- 동화 구연 유튜버 '베아트리즈 몬테로'와 협력해 한국동화 구연 영상 시리즈 게시
- 4월 작품으로 유준재 작가의 『파란 파도』 공개

○ 말라가 한국영화 상영회 [4.7.~4.28. | 말라가 현대미술관]

- 말라가 현대미술관과 협력해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라는 주제로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은 영화 <완벽한 타인>, <우리집>, <배심원들>, <82년생 김지영> 상영

○ 박철호 작품전 '공간 속의 파문' [4.7.~6.4. | 문화원, 온라인]

- 동양적 사유와 철학적인 접근방식으로 표현한 판화, 설치 작품 전시

○ 엑스트레마두라 한국영화상영회 [4.8.~4.22. | 엑스트레마두라 영상자료원]

- 엑스트레마두라 영상자료원과 협력해 제7회 한국영화상영회 개최
- 스페인 미개봉작인 <82년생 김지영>, <암수살인>, <남산의 부장들>을 엑스트레마두라 지역 4개 도시에서 상영

○ 온라인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 #ExperimetaCoreaEnCasa [4.22.~4.24. | 온라인]

-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1,000년 이상 보존한 한국의 전통 종이 한지를 소개하고, 한지로 서책을 제작하는 체험 진행

○ 코리안 클래식 음악제: 한지호 독주회 [4.28. |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원]

- 마드리드 내 최고 문화예술 교육기관인 산페르난도 왕립미술원과 협력해 한국의 우수한 클래식 음악가를 소개하고 유럽무대 진출 기회 마련
- 피아니스트 한지호 초청 공연

러시아

○ 한국 불교예술과 문화 특강 [4.7. | 온라인]

- 하지조바 크세니아(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한국 불교예술의 전승기인 신라와 고려시대의 건축물, 불교 사원, 불교 미술에 대해 강연



○ **한국 어린이 영화의 날 개최** [4.10.~4.12. | 사마라 영상상영관]

- 제26회 사마라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기념해 한국 어린이영화 <두레소리(2012, 드라마)>,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2014, 애니메이션)> 상영

○ **한국 고전문학 특강 『신사임당 전』** [4.14. | 온라인]

- 체스나코바 나탈리아(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한국문화 강사를 초청해 조선 중기 대표 학자인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자 그림, 시, 글씨에 능했던 신사임당의 예술가적 삶에 대한 강연

○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 [4.23.~4.24. | 모스키노 코스모스 상영관]

-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를 기념해 한국영화 특별전 개최
- 박찬욱 감독 작품 2편과 2020년 흥행작품 2편 상영, 한국영화 포스터 전시 등 부대행사 개최 예정

○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4.19.~5.2. | 온라인]

-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개최

폴란드

○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4.23.~4.25. | 온라인]

- 영화영상 전문 플랫폼인 모에이키노(MOJEeKINO)를 통해 한국 장·단편 애니메이션과 회고전 등 총 14편 소개

헝가리

○ **온라인 K-Food Academy 요리교실 : 한 입 특집** [4.1.~4.15. | 문화원 유튜브]

- 한 입 크기의 인기 한식 소개
- 4.1. 치즈계란말이와 소세지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그에 어울리는 배추김치 소개
- 4.8. 동그랑땡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그에 어울리는 갓김치 소개
- 4.15. 순살치킨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그에 어울리는 무김치 소개

○ 온라인 K-Food Academy 요리교실 : 명이 특집 [4.22.~4.29. | 문화원 유튜브]

- 헝가리에서 제철을 맞이한 명이를 활용한 한식 소개
- 4.22. 명이 장아찌와 명이 나물을 만드는 법 소개
- 4.29. 명이 김치 만드는 법 소개

○ 온라인 공연 시리즈 - 한국문화배달서비스 시즌3 [4월~6월 | 문화원 SNS]

- 매주 화요일에 한국의 우수 공연 콘텐츠를 SNS에 게시
- 4.6. 데카당스시스템.아플라, 4.13. 현(絃)섭하다, 4.20.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4.26. 리스트 한국음악인 콘서트

터키

○ 제75회 한국어능력시험 [4.10. | 앙카라대학교]

- 주재국 내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 온라인 전통공연 [4.20. | 온라인]

- 한국 전통공연단의 공연을 유튜브로 생중계

○ ‘피아니스트 정현숙과 Friends’ 온라인 콘서트 [4.23. | 온라인]

- 피아니스트 정현숙 교수와 현지 클래식 예술가들의 한-터 우정의 콘서트 개최

미주

미국 - 워싱턴

○ 현지 갤러리 협력 한국 미술 전시 [3.17.~5.13. | 플레인사이트]

- 워싱턴DC의 코로나19 지원 기금 프로젝트로 한국 작가의 전시와 온라인 대담 개최
- 4.28. 온라인 대담 영상 배포

○ 국립발레단 협력 온라인 공연 상영회 [4.9.~4.10., 4.16.~4.17. | 온라인]

- 국립발레단 온라인 플랫폼에서 창작발레 <허난설현-수월경화>, <호이 랑> 상영

○ **조지타운 글로우(Georgetown Glow) 야외 전시** [4.9.~6.27. | 조지타운, 문화원]

- 빛을 주제로 한 야외 공공미술 전시를 진행하고, 한국 설치미술가 박나라 작가의 작품 소개

○ **김치 유니버스 시리즈 3편, 'Beyond the Kimchi'** [4.15.~ | 온라인]

- 현지 요리사와 현지인이 함께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배포

○ **K-Cinema in DC & at Home** [4.19.~4.25. | 온라인]

- 문화원 정기 한국영화 상영회로 이번 달은 <양자물리학> 영화를 상영

○ **<K-Art at Home> K-Recollection 온라인 전시** [4.23.~7.9. | 문화원, 온라인]

- 한인 미술가 12인을 선정해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전시하고, 온라인 전시 투어 영상 배포

미국 - 뉴욕

○ **어린이 한국어 교실** [4.15. | Google Meet]

- 한국어 전문 강사를 초청해 현지 기관 교육 담당자와 한글을 주제로 매월 다양한 한글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기획
- 한인 2-3세 동포와 현지인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K-뉴 리더스** [4.28.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뉴욕 현지 김치 브랜드인 마마오스(Mama O's)의 오기림 대표를 초청해 사업 경험담과 성공 스토리에 관한 대담

○ **<2021 오픈 스테이지: 굿바이 460 파크, 함께 만드는 미래> 기획 공연 #2
서린챔버앙상블 "The sounds of winds and ten fingers"**

[4.30.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뉴욕 현지의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연 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계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 기회 제공
- 문화원 대표 기획 공연 프로그램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총 6개 공연 작품을 문화원에서 촬영해 3월부터 8월까지 한 달에 한 편씩 온라인으로 상영
- 4월에는 신진 작곡가 서린이 이끄는 서린챔버앙상블의 <The sounds of winds and ten fingers> 온라인 영상 공개

○ **집에서 즐기는 한국문화** [4월 | 문화원 누리집]

- '온라인 한국문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주요 공연기관 및 뉴욕 현지 공연예술기관과 협업해 우수한 한국 공연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

- 한식진흥원 제작한 전통 한식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The Taste of Korea Hansik Documentary> 상영
- 한국영상자료원이 제공하는 우수한 한국 고전 영화를 다양한 주제로 선정해 상영 (1980년대 고전영화 상영 예정)

○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한국어 회화** [4월 | 문화원 누리집]

- 세종학당재단의 콘텐츠지원부와 협력해 한국어회화 교육 프로그램인 ‘팝파핑 코리안 (PoPopping Korean)’ 영상 시리즈를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원 누리집에서 제공

○ **온라인 한식 요리 특강** [4월~5월 | 문화원 누리집]

- 뉴욕에서 활동하는 한인 정재은 셰프와 세계적인 레스토랑 엘 불리(EI Bulli) 경력의 셰프 (Jaume Biarnés Digón) 초청
- 현지에서 구입하기 쉬운 식재료와 한식 조리법을 활용한 한식 요리, 한국 전통 장을 활용한 특별 드레싱 만들기 등 요리 시연 영상을 제작해 배포

○ **온라인 World Best ‘BTS’ Cover Song & Dance Competition**
[4월~5월 | 문화원 누리집, SNS]

- K-Pop 그룹 BTS 혹은 K-Pop의 팬을 대상으로 BTS Song&Dance 온라인 경연대회 개최

미국 - LA

○ **4.29 기념 한/영 문학공모전 : Remembering 4.29.1992 LITERARY CONTEST** [3.10.~6.30. | 온라인]

- 4.29 폭동의 아픔을 공동체 의식으로 치유하는 주제로 시, 수필, 소설 부문으로 한/영 2개 언어로 작품 모집해 수상
- 11월 문집 발간 예정

○ **Virtual Korea 2021 K-Performance Series : BTS Gugak**
[4.7., 4.14., 4.21. | 문화원 누리집, SNS]

- 국립국악원 <단원 일상 & 일과 엿보기> 영상에 영문자막을 지원해 현지인에게 한국 국악공연의 비하인드 영상 제공

○ **봄학기 온라인 한국어 강좌 운영** [4.13.~6.29. | 온라인(ZOOM)]

- 현지인 대상으로 실시간 한국어 화상 강의 실시(초급 5개반, 중급 3개반, 고급 1개반 운영)

○ **4.29 LA폭동 기념 한·흑 커뮤니티 문화교류 공연** [4.28. | 문화원 누리집, SNS]

- 4.29 LA폭동을 기념하며 한·흑 예술인들의 문화교류 공연을 개최해 한·흑 커뮤니티 간 화합 도모

○ **한국문화가 있는 날 : Hanbok 101 VLOG** [4.28. | 문화원 누리집, SNS]

- 현지 한복점을 방문하는 VLOG 형태의 영상을 제작해 한복에 대한 정보와 한복 입어보기 등의 내용 제공

○ **Artist Talk 온라인 라이브 행사** [4.29. | 온라인]

- USC 아태박물관(USC Pacific Asia Museum)과 함께 재미 도예가 박윤정 교수를 초청해 한국의 전통/현대 도자기에 대한 강연을 온라인으로 제공

○ **Virtual Korean Movie Night** [4월 | 문화원 누리집]

- 김용훈 감독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2018)> 영화 상영

○ **K-Food Series_김치 만들기** [4월 중 | 문화원 누리집, SNS]

- 이성희 셰프(미 CDC역학연구원, 『Everyday Korean』 요리책 저자)와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함께 김치를 만드는 영상 제작

캐나다

○ **2021 K-Academy 문화강좌 - 전통무용** [4.9.~5.28. | 온라인(ZOOM), SNS]

- 전통무용 문화강좌를 온라인으로 진행

○ **K-Food Series 한식 영상 시리즈 상영** [4.12., 4.26. | 문화원 SNS]

- K-dance 온라인 정규강좌로 월 2회 업로드 예정

○ **한복전시** [~4.16. | 문화원 전시실, SNS]

- 한복의 역사와 아름다움 소개, 돌옷, 혼례복, 관례복, 수의 및 한복 악세서리, 현대 한복 등을 전시
-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온라인 한복전시 영상 제작·배포

○ **K-시네마 온라인 상영회** [4.28. | 온라인]

-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2018)>을 온라인으로 상영

○ **한-캐 미술가 온라인 스튜디오 방문 시리즈3** [4.29. | 문화원 SNS]

- 캐나다 유망 신진작가 중 한 명인 한국계 민지희 작가의 스튜디오를 온라인으로 방문, 작가의 신작 소개

브라질

○ 온라인 한글 캘리그래피 강좌 [3.6.~4.10. | 온라인(ZOOM)]

- 현지 한국어 캘리그래피 강사와 함께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펜을 활용한 한글 캘리그래피 온라인 강좌

○ ‘블랙 스완’과 함께하는 랜선 여행 [3.22.~.4.30. | 문화원 유튜브]

- 브라질인 레아가 속한 아이돌 그룹 ‘블랙 스완’과 함께 그룹 멤버들의 고향인 수원, 광주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여행 콘텐츠 제작·배포

○ 온라인 한식 강좌 - 조리편 [4.24. | 문화원 유튜브]

-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요리 강좌
- 온라인 한식 강좌의 이론편과 연계해 이론편에서 선보인 메뉴로 선정

○ 온라인 세종학당 문화 워크숍 -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 [4월 중 | 문화원 유튜브]

- 기와집 모형 만들기 키트와 온돌 모형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 주거문화를 소개하고 실제 모형을 제작해보는 체험 활동

○ 걸어서 한국 속으로 [4월 | 문화원 유튜브]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서울, 부산 등 주요 관광지를 촬영해 온라인 라이브 투어 형태로 상영
- 사전 홍보 후 실시간 경품 추첨으로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문화원 내 한국문화 전시 [4월~5월 | 문화원 전시실]

- 브라질 교민문화예술단체, 현지에술인들의 문화원 전시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시공모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전시프로그램 유치

아시아

중국 - 북경

○ 201 양저우 세계원예박람회 한국관 - 한중연 문화축제 [4.8.~10.8.]

- 한국관 운영, 문화홍보 영상 상영, 문화체험 행사, 한국 관광 사진전 개최 등을 진행

○ 문화원 개원 14주년 기념 <한중 서화 교류전> [4.22.~7.22.]

- 중국 내 거주하는 한국, 중국 작가 10인의 수묵화, 중국화, 서예 등 작품 45여점 전시

중국 - 상하이

○ 미소를 담아 봄, 한중문화 교류의 날 [4.17. | 상하이시황금성도 거리]

- 가족 단위의 한·중 전통놀이 체험, 한국사진 포토존, 한중 우호를 주제로 한 한글 그래픽 체험 등 개최

○ 온라인 한식문화 소개 [4월 | 온라인]

- 봄 계절의 음식을 주제로 한식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홍보

홍콩

○ 제45회 홍콩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상영 [4.1.~4.12. | 홍콩 내 영화관]

- 제45회 홍콩국제영화제와 협력해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연계 부대행사 진행

○ 세종학당 2021년 봄 정규학기 한국어 강좌 [4.1.~4.30. | 온라인(ZOOM)]

-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갖는 현지인들에게 정규 한국어 수업 제공
- 초급 한국어 수업, 초급 한국어 회화 수업 개설

○ 한국 전통매듭 강좌 시리즈 [4.2.~4.23. | 온라인]

- '한국 전통 매듭 기초 및 활용편'으로 총 4편 영상 공개
- 문화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매듭 체험키트를 증정하는 행사 진행

○ 정규한식강좌 K-Food with YOU 2회 [4.6. | 문화원 SNS]

- 현지 유명 게스트(Maxim's COO Martin Lee)를 초청해 쿠킹 쇼 형식의 '닭볶음탕' 강좌 제공

○ 정규한식강좌 K-Food Minute-Kitchen 4회 [4.27. | 문화원 SNS]

- 문화원 정규 온라인 한식강좌로 김치 담그는 법, 막걸리와 두부 등과 함께 세팅하는 방법을 제공

○ 2021 한국 젊은 작가전: 바늘 더미에서 건초 찾기 [4.28.~6.26. | 문화원 전시실]

- 제4회 문화원 기획 한국 젊은 작가전 시리즈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그리는 전현선, 이인성, 최수진 세 작가의 회화 작품 전시

○ 국립현대무용단 댄스필름 상영회 [4.29.~5.5. | 홍콩아트센터, 온라인]

- 국립현대무용단이 제작한 댄스필름 4편 상영

일본 - 동경

○ 온라인 한국 문화 공연 <확청> [4월 | 문화원 유튜브]

- 2020년 남도국악원이 제작한 공연 <확청>을 일본어로 번역·편집한 후 상연

○ 후지모토 타쿠미 활동 50주년 기념 특별순회전 '성신교린' [4.15.~6.1. | 문화원]

- 한국의 문체부 장관상과 일본의 도문켄상을 수상한 후지모토 타쿠미 작가의 전시
- 1970년대부터 50년간 찍어온 한일교류의 흔적이 담긴 사진 전시

○ 온라인 한국요리교실 [4월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한국요리가 김연정 선생님의 계란찜 요리동영상 공개와 요리사진·감상문 콘테스트 진행

○ 온라인 한국문화체험교실 [4월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 청사초롱 종이접기 온라인 동영상 제공, 체험키트 증정

○ 세종학당 2021년도 한국어강좌 개강 [4월~9월 | 온라인(ZOOM)]

- 일반시민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강좌로 정규강좌와 특별강좌로 나뉘며, 총 44개 반에 647명 정원

일본 - 오사카

○ 문화 세미나 <오사카 한국문화 살롱> [4월 | 문화원 유튜브]

-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한국 영화를 분석하고 일본 영화와의 차이점을 통해 양국 문화 이해 증진

○ 2021년도 K-CULTURE ACADEMY 개강 [4.12.~12월 | 문화원]

-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9개 문화강좌(민화, 가곡, 보자기, 전통무용, 가야금, 판소리, 민요, 장구, 태권도) 개강

인도

○ 제 6회 한·인도 친선 퀴즈 대회 [4.1.~7월 | 온라인]

- 전인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퀴즈 대회를 개최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이미지 홍보, 한국문화 콘텐츠(역사, 한국어, 스포츠, 시사, 국제관계, 한류, K팝등) 소개,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을 고려해 한복, 갓, 김치 등 한국의 전통문화 소개
- 전인도 2,500~3,000개 학교, 25만 명의 학생을 목표로 하며 1차 학교별, 2차 도시별 예선을 거쳐 3차 최종 본선을 온라인으로 개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최** [4.11. | 네루대학교 외 5개 시험장]

- 전인도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 **한류를 찾아서** [4.15. | 온라인]

- 현지인들이 한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한류 현장 영상 콘텐츠 제작·배포
- 4월 주제는 한류 패션, 현지 한국 브랜드 패션, 의류 관련 매장 및 커뮤니티 현장

○ **2021년 제2차 온라인 한국어 입문반 개강** [4월~6월 | 온라인]

- 4.24.~6.27. 주말반, 4.27.~7.1. 주중반 운영
- 4개 반으로 구성해 한국어 모음·자음, 기초 문법 등 총 20시간 과정

인도네시아

○ **‘황금의 나라 신라’ 온라인 VR 전시회** [4.1.~4.30. | 문화원 누리집]

- 국립경주미술관의 신라역사실 유물을 VR로 전시

○ **문화원과 함께하는 온라인 라이브 토크쇼** [4.5.~4.26. | 온라인]

- 한국 웹툰(4.5), 한국어(4.12), 애니메이션(4.19), 국악 퀴즈(4.26)를 주제로 매주 토크쇼 진행

○ **4월 한국영화가 있는 날** [4.9. | 문화원]

- 공포 영화를 주제로 한국영화 <곤지암(2018)> 상영

○ **한식으로 부까뿌아사(금식해제)** [4.15. | 온라인]

- 금식기간에 어울리는 웰빙 한식 시연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 **2021 한글 디카시 공모전** [4.19.~5.12. | 온라인]

- 한국 문학을 주제로 하는 디카시* 공모전 진행

*디지털카메라와 시(詩)의 합성어로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써서 영상과 문자가 한 덩어리로 된 멀티 언어 예술

○ **한국 사투리 특강 및 경연대회** [4.22. | 온라인]

- 경북대 국문과 교수를 초청해 한국 방언에 대한 특강을 개최하고 경연대회 진행

○ **한국고전영화 온라인 상영** [4.23.~4.30. | 문화원 누리집]

- 한국고전영화 <교방동네 사람들(1982)>을 온라인으로 상영

○ **4월 인도네시아 한류팬 초이스 시상식** [4.29. | V-Live, 문화원 SNS]

- 매 월 최고의 K-POP과 드라마 선정을 위한 투표, 시상식 개최

○ **4월 문화가 있는 날 '라마단과 한국의 할랄 관광'** [4월 | 온라인]

- 라마단 금식기간 관련해 한국관광지를 홍보하고 코로나19 현황 등 소개

필리핀

○ **Traditional Thursday - 김치** [4.1.~4.29. | 문화원 SNS]

- 문화원의 연간 테마 '전통 문화 바로 알리기'에 따라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

- 4월의 주제는 김치이며 김치의 역사, 지역별 대표 김치 등을 소개

○ **Chika* 한식 - 김치 에디션** [4월~5월 | 온라인]

- 주재국 내 인플루언서와 함께 김치를 활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식 요리 소개(깍두기볶음밥, 김치전, 김치만두, 부대찌개)

- 김치를 활용한 필리핀 음식(김치 시니강)의 조리법을 소개하는 토크쇼 형식

*'말한다'라는 의미로 수다를 겸한 요리 영상을 뜻함

베트남

○ **2021년도 1기 한글강좌 운영** [3.20.~6.30. | 문화원, 온라인]

-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한국어 강의 제공

○ **'한복에 반하다' 챌린지** [4.3.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 현지인 대상으로 한복과 액세서리 무료대여, 대사관 주변 공간을 활용한 촬영 프로그램 추진

○ **'김치로 건강을' 김치 홍보 사업** [4월~5월 | 문화원 SNS]

- 유튜버들의 김치 체험 영상을 제작하고 김치-반미 챌린지를 추진해 문화원 SNS에 게시

○ **K-야구를 통한 스포츠 한류 확산 프로젝트** [4월~12월 | 하노이]

- 4.24.~4.25. 대사배 베트남 유소년 야구대회 및 스포츠문화축제 개최

○ **한-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 [4월~12월 | 하노이]

- 한국과 베트남 청소년으로 구성된 한-베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해 문화원 개원 15주년 및 한-베 수교 30주년 계기 행사 참여

○ **공공외교 한-베 대학생 명예기자단 운영** [4월~11월 | 하노이]

-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하고 활동을 지원
- 총 12개의 콘텐츠 제작하고 SNS, 한인소식지, 코리아넷에 배포

태국

○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3.3.~12.18. | 문화원]

- 만 15세 이상의 태국인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반 한국어 강좌 개설(총 6개반)

○ **Say Kimchi!** [4월 | 문화원]

- 현지인과 함께 김치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김치를 활용한 한식 소개

카자흐스탄

○ **온라인 한국영화제** [4월 | 문화원, 온라인]

- 한국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수상을 기념해 주재국내 한국과 한국영화콘텐츠 홍보를 위한 온라인 상영회 개최

UAE

○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 KOREA UAE 페스티벌 [4.2. | 온라인]

- 중동국가 최초 상호문화교류의 해 기념행사로 K-POP 아티스트 6팀과 UAE 현지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온라인 콘서트 개최
- 3.31.~4.1. 부대행사로 콘텐츠진흥원 주관 B2B부스와 한국문화체험 부스 운영

○ 문화원 정기 공연 [4월 | 온라인]

- 국악팀을 초청해 진행하는 온라인 콘서트

○ 온라인 라마단 행사 [4월 | 온라인]

- 이슬람에서 중요한 달인 라마단을 기념해, 한류동호회 주최로 주재국 한인들에게 라마단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소개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 진행

이란

○ 퀴즈 온 코리아 [4.11.~4.25. | 온라인]

- 주재국의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관련 온라인 퀴즈 대회를 개최

오세 아니아

호주

○ 온라인 한식강좌 [4.8. | 온라인]

-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데이빗 랄프(현지 요리학교 TAFE 강사), 헤더 정(한식 셰프)이 공동 진행하며 김치를 활용한 요리 만들기 시연을 진행

○ 가평전투 70주년 기념 강연·인터뷰 [4.23. | 문화원, SNS]

- 가평전투 70주년을 기념해, 역사학자이자 안작 전쟁기념관 학예사인 브레드 마네라의 강연과 전시에 대한 설명, 가평전투 참전용사 인터뷰를 진행

○ 가평전투 70주년 기념 전시 [4월~6월 | 문화원]

- 시드니 안작 전쟁기념관(ANZAC War Memorial)과 공동주최로 가평전투 관련 전시

○ 온라인 K-POP 뮤직비디오 패러디 경연대회 [4월 중 | 온라인]

- 현지 K-POP 팬을 대상으로 K-POP 뮤직비디오 패러디 영상 공모
- 최종 10작품을 선정해 온라인에 게시

아프리카

이집트

○ 2021 한국문학의 달 [4.12.~5.12. | 온라인]

- 『82년생 김지영』의 아랍어판 출간을 계기로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조명하는 온라인 행사

나이지리아

○ Know your Korea - 한국음식 [4.1.~4.30. | 문화원 SNS]

- 외국인에게 흥미로운 한국에 대한 소개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배포
- 4월은 한국음식을 주제로 소개 예정

○ 한국어 강좌 [4.1.~4.30. | 문화원]

- 초급 4개 반을 운영하며 한 반에 10명 내외로 소규모 오프라인 강의 운영

○ 태권도·K-POP 온라인 강좌 [4.1.~4.30. | 온라인]

- 태권도 강좌: 현지인 태권도 강사가 영상을 제작해 매주 목요일 주 1회 게시
- K-POP 댄스 강좌: 현지인 K-POP 댄스 강사가 영상을 제작해 주 1회 게시

○ 한국 문화의 날 - 트로트 배우기 [4.22. | 온라인]

- 사전 예약자 대상, K-Trot 홍보를 위해 한국의 트로트 열풍과 인기 트로트 가수 섭외 및 노래감상, 인기 트로트 노래 배우기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

○ 어린이 사생대회 [4.28. | 주재국 초등학교]

- 주재국 초·중등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친한·지한인사로 육성하기 위한 사생대회 개최

Vol.14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1년 4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1년 4월 9일

발행인

박정렬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김혜영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조윤중 | 주뉴욕 한국문화원장

김연재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객원교수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1971-2021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